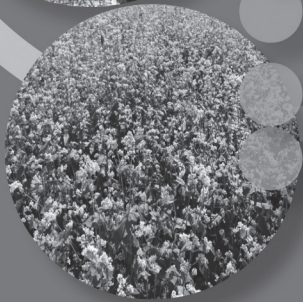


# 밭 실태 조사 분석 연구

2013. 2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밭 실태 조사 분석 연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책임자 : 임 상 봉

연 구 원 : 김 미 영

심 고 은

위촉연구원 : 정 홍 우 (한국농촌발전연구원)

이 형 순

오 민 진

최 진 욱



# 목 차

<b>1. 서론</b> .....	<b>1</b>
1.1 연구의 필요성 .....	3
1.2 연구의 목적 .....	3
1.3 선행연구 검토 .....	3
1.4 연구범위 및 방법 .....	6
1.4.1 연구범위 .....	6
1.4.2 연구방법 .....	6
<b>2. 쌀 농업 일반현황과 변화추이</b> .....	<b>7</b>
2.1 쌀농업이 처한 국내외 여건 .....	9
2.1.1 FTA 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	9
2.1.2 식량자급률 저하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 .....	9
2.1.3 쌀농가 지원정책으로서의 쌀농업직불제의 도입 .....	12
2.2 쌀농업의 일반적 특징 .....	14
2.2.1 농지이용 형태 .....	14
2.2.2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성 .....	15
2.2.3 쌀농지의 질적 측면 .....	15
2.2.4 쌀농가의 농업경영 형태 .....	17
2.2.5 쌀 재배작물의 작부체계 .....	17
2.3 쌀농업의 현황과 변화추이 .....	19
2.3.1 쌀 경지면적 .....	19
2.3.2 쌀농가 경영구조 .....	21
2.3.3 쌀경지 이용실태 .....	23
2.3.4 주요 쌀작물의 재배면적 .....	25
2.3.5 주요 쌀작물의 소득변화 .....	34
2.3.6 주요 쌀작물의 수급동향 .....	36

<b>3.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밭경지 이용실태</b> .....	<b>59</b>
3.1 현장조사 개요 .....	61
3.1.1 현장조사 목적 .....	61
3.1.2 조사대상의 선정 .....	61
3.2 밭 농가조사 결과 및 분석 .....	62
3.2.1 응답자 특성 .....	62
3.2.2 밭 이용 실태 .....	64
3.2.3 밭농업 경영형태 .....	67
<b>4. 밭농업 직불제 관련 의향과 영향요인</b> .....	<b>77</b>
4.1 밭농업 직불제 신청의향 .....	79
4.1.1 밭농업 직불제 신청여부 .....	79
4.1.2 밭농업 직불제 미신청 사유 .....	79
4.2 밭농업 직불제 지원상한에 대한 의견 .....	80
4.3 밭직불사업의 추가지원 희망품목 .....	80
4.4 임야를 밭으로 지목전환시 우려하는 점 .....	81
4.5 밭농업 직불제 신청 영향요인 .....	81
4.5.1 경영주 연령 .....	81
4.5.2 경영규모 .....	83
4.5.3 농지소유 형태 .....	87
<b>5. 밭 실태 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b> .....	<b>93</b>
5.1 체계적인 밭 실태조사의 필요성 .....	95
5.2 밭 실태조사 현황 .....	95
5.3 밭 실태조사시 고려사항 .....	96
5.4 밭 실태조사 DB 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	96
5.5 밭농업 직불제의 효율적 지원방안 .....	97
<b>6. 결론 및 제언</b> .....	<b>99</b>

<b>참고문헌</b> .....	103
<b>부표</b> .....	105
1. 시·군별 밭 경지면적(2011) .....	105
2. 연도별, 주산지별 작물재배면적 추이 .....	108
3. 주요 작물의 소득 변화(2011년 불변가격) .....	113
4. 밭 농업실태 조사현황 .....	115
5. 도별, 작물별 밭 농업소득 .....	116
6. 2011/2012/2013년 도별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	120
7. 밭 농업 실태 농가조사표 .....	124

## 표 차례

<표 2-1> 농산물 수출입 동향 .....	9
<표 2-2> 주요 국가의 식량자급률(2009) .....	10
<표 2-3>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정책목표치 .....	10
<표 2-4> 물가 변동 추이 .....	11
<표 2-5> 연도별 쌀 수요량 .....	12
<표 2-6> 농지 특성별 임차료 비교 .....	16
<표 2-7> 연도별 경지면적 .....	19
<표 2-8> 밭 면적 5천ha 이상인 시·군 .....	20
<표 2-9> 규모별 밭 농가 .....	21
<표 2-10> 경영주 연령별 밭 농가 .....	21
<표 2-11> 농지소유 형태별 밭 농가 .....	22
<표 2-12> 판매금액별 밭 농가 .....	22
<표 2-13> 밭 경지 이용면적 및 이용률 .....	23
<표 2-14> 시설작물 재배면적 .....	24
<표 2-15> 연도별 휴경농지 현황 .....	25
<표 2-16> 연도별, 작물별 재배면적 .....	26
<표 2-17> 맥류 주산단지 재배면적 .....	28
<표 2-18> 고추 주산단지 재배면적 .....	29
<표 2-19> 마늘, 참깨 주산단지 재배면적 .....	30
<표 2-20> 고랭지 감자, 양파, 봄감자 주산단지 재배면적 .....	31
<표 2-21> 김장배추, 김장 무 주산단지 재배면적 .....	32
<표 2-22> 김장배추 특화지역 재배면적 .....	33
<표 2-23> 김장 무 특화지역 재배면적 .....	33
<표 2-24> 논작물과 밭작물의 농업총수입 .....	34
<표 2-25> 주요 작물의 소득변화(2011년 불변가격) .....	36
<표 2-26> 식량작물 생산량 .....	37
<표 2-27> 맥류 생산량 .....	38
<표 2-28>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생산량 .....	38
<표 2-29> 전체 곡물 자급도 .....	39
<표 2-30> 겉보리 수급 실태 .....	40
<표 2-31> 쌀보리 수급 실태 .....	41
<표 2-32> 맥주보리 수급 실태 .....	42



<표 2-33> 밀 수급 실태 .....	43
<표 2-34> 호밀 수급 실태 .....	44
<표 2-35> 콩 수급 실태 .....	44
<표 2-36> 팥 수급 실태 .....	45
<표 2-37> 녹두 수요 공급 실적 .....	46
<표 2-38> 땅콩 수급 실태 .....	47
<표 2-39> 옥수수 수급 실태 .....	47
<표 2-40> 시·도별 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2009) .....	48
<표 2-41> 연도별 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48
<표 2-42> 수수 수입량 .....	49
<표 2-43> 수수 수요 공급 실적 .....	49
<표 2-44> 조 수급 실태 .....	50
<표 2-45> 메밀 수급 실태 .....	50
<표 2-46> 율무 수입량 .....	51
<표 2-47> 채소류 생산량 .....	52
<표 2-48> 고추 수급 실태 .....	53
<표 2-49> 마늘 수급 실태 .....	53
<표 2-50> 양파 수급 실태 .....	54
<표 2-51> 참깨 수급 실태 .....	54
<표 2-52> 청예 이용시 각 작물의 영양성분 .....	56
<표 2-53> 사료작물 가소화 단백질 함량 및 열량비율 .....	56
<표 2-54> 하계 전작지 조사료 생산량(2009) .....	57
<표 2-55> 조사료 수요 및 공급량(2009) .....	58
<표 3-1> 조사지역 및 조사농가 .....	62
<표 3-2> 경영주 연령 .....	62
<표 3-3> 지목별 밭 이용면적 .....	64
<표 3-4> 공부상 밭의 이용면적 .....	65
<표 3-5> 타 지목의 밭 이용면적 .....	66
<표 3-6> 지목상 밭의 타용도 이용면적 .....	66
<표 3-7> 자경, 임차, 임대면적 .....	67
<표 3-8> 지목별 자경면적 .....	68
<표 3-9> 지목별 임차면적 .....	69
<표 3-10> 밭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	70
<표 3-11> 작물별 재배면적 .....	71

<표 3-12> 밭농업 소득 .....	72
<표 3-13> 2011/2012/2013년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	75
<표 4-1> 경영주 연령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	82
<표 4-2> 경영주 연령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3
<표 4-3>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밭직불제 신청여부 .....	84
<표 4-4>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5
<표 4-5>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밭직불제 신청여부 .....	86
<표 4-6>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6
<표 4-7> 농지소유형태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	88
<표 4-8> 농지소유형태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9
<표 4-9> 경영주 연령별 자경/임차 현황 .....	90
<표 4-10>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기준) 자경/임차 현황 .....	90
<표 4-11>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기준) 자경/임차 현황 .....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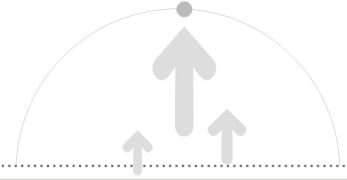
## 그림 차례

(그림 3-1) 경영주의 연령 분포 .....	63
(그림 4-1) 밭 직불제 신청여부 .....	79
(그림 4-2) 밭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0
(그림 4-3) 경영주 연령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	82
(그림 4-4) 경영주 연령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3
(그림 4-5)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밭직불제 신청여부 .....	84
(그림 4-6)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5
(그림 4-7)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밭직불제 신청여부 .....	86
(그림 4-8)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6
(그림 4-9) 농지소유 형태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	88
(그림 4-10) 농지소유 형태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89
(그림 4-11) 경영주 연령별 자경/임차 현황 .....	90
(그림 4-12)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자경/임차 현황 .....	90
(그림 4-13)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자경/임차 현황 .....	91



1

서  
론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WTO/FTA 등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오고 있음.
- 이러한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 5개 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시장개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밭 농업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 농업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처음 시행되는 밭 농업직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① 곡물,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밭작물 중 밭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작물 선정 ② 직접지불제도의 논·밭 균형 ③ 밭 농업의 구조개선 ④ 수급 불균형인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⑤ 밭 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고려한 밭 농업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밭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함.

##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밭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밭 농업의 경영규모 등 밭 농가 경영실태와 밭 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고 밭 경지의 실태 및 이용현황과 밭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밭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1.3 선행연구 검토

- 우리나라는 WTO/FTA 등에 따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

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997년 처음으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그 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등 5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밭 농업의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 친환경농업, 경영이양직불제도 등 대부분의 직접지불제도는 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위와 같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연구는 많았지만 현재까지 밭 실태조사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음. 밭 실태조사와 유사한 선행연구는 2005년 김태곤 외 2인이 밭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직접지불제도의 실시동향과 향후 밭농업 직접지불제도의 구상을 내용으로 한 밭 농업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가 있었고 2006년 권태수의 밭 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연구도 밭 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내용이었으며 2004년 김병철의 밭규모화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와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의 밭 영농규모화사업 도입방안 연구는 밭농업의 경영규모확대를 위한 연구로서 밭경지의 실태 및 밭 농업의 경영실태 등 밭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는 없었음.
- 외국의 직접지불제도를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비교적 조기에 직불제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고정 직접지불제도와 가격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고정 직불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직불금은 품목별 기준 식부면적과 평균단수, 지불단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불단가는 품목별로 농업법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함. 이 금액은 현재의 작물, 가격, 생산량에 상관없이 지불되는데 식부면적과 단수는 과거기준이며 단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금액은 고정됨.
-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는 2002년 농업법에서 제도화하였는데, 이 제도는 국제가격 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고정직접지불과의 차액에 대하여 직접지불하여 주는데 식부면적은 과거의 실적을, 단수는 기준단수



또는 평균단수 중에서 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음.

- EU도 비교적 조기에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소득보상 직접지불제도와 단일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소득보상 직불제도는 지지가격을 인하하는 대신에 가격인하에 따른 농가손실분을 소득보상직접지불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제도로서 이와 같은 배경에는 생산과잉과 재정부담증대, WTO 농업협상에서의 국내보조감축 등의 문제가 있음. 직접지불 금액은 기준면적×단수×지불단가로 결정하는데 지불단가는 EU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수는 가맹국의 지역별로 결정된 과거의 기준단수를 적용하고 기준면적은 농가별로 실제 식부한 면적과 의무적으로 휴경한 면적을 합계한 것으로 함.
- 단일 직불제도는 소득보상직불제가 생산과잉을 초래하고 재정부담을 과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 직불제로 통합하였음. 생산을 왜곡하지 않는 단일 직불제는 농가별로 실제로 수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는데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이나 EU처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직불제도를 확충시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중산간직접지불제도와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면서 구조개선의 촉진제로도 활용을 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EU와는 다른 점임. 중산간 직접지불제도는 경사도와 농지형상 등 대상농지가 있는 지역의 마을을 단위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지불단가에 따라 직불금이 지불됨. 이행조건은 경작포기 방지를 위한 농업생산활동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중시함. 지불단가는 일반농지와 대상농지의 생산비 차액의 80%로 하고 있음.
-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직불제도는 ①시장개방과 관세감축에 의하여 외국과의 생산비 격차가 현저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직접지불하고 ②가격변동에 의해 소득이 감소하여 경영불안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수입을 설정하여 당해 연도 수입이 기준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여 주는 제도임.

## 1.4 연구범위 및 방법

### 1.4.1 연구범위

- 밭 경지의 현황 분석
  - 통계자료를 통한 현황분석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한 현황분석
- 밭 경지의 실태 및 이용 현황 조사
  - 밭 경지면적 및 작부체계
  - 작물재배현황 및 경영형태 등
  - 밭 직불제 신청 현황 및 희망품목 등
- 밭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 밭 실태조사 현황
  - 밭 실태조사 DB 개선안 제시
  - 모니터링 방안

### 1.4.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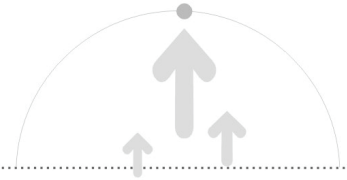
- 국내 유사 선행연구 자료와 외국의 유사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시사점을 반영하고 향후 전개될 국내 밭 농업환경에 따른 밭작물 수급실태를 전망
- 밭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후 밭 경지이용현황과 주요 밭작물<sup>1)</sup>의 재배면적 및 영농현황, 밭 농가의 경영영향요인 등을 포함한 밭 농업 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밭 농가로부터 밭 직불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학계,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종보고서 작성시까지 연구에 대한 자문과 토론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

1) 이 연구에서 주요 밭작물이라 함은 재배면적이 많은 밭작물과 밭직불제 지원대상인 26개 품목 등을 의미함.

# 2

## 밭 농업 일반현황과 변화추이





## 2. 발농업의 일반현황과 변화추이

### 2.1 발농업이 처한 국내외 여건

#### 2.1.1 FTA 체결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점진적인 시장개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는 DDA에 의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2002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한·ASEAN, 한·EU, 한·미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음
- 이와 같은 국제무역 증가 추세에 따라 농산물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액이 수출액의 4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입의 증가율이 수출의 증가율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2년에는 수입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반면에, 수출은 2% 감소하여 수입과 수출간에 증감률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표 2-1> 참조)

<표 2-1> 농산물 수출입 동향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수출액	2,634	3,269	4,452	4,364	-2.0
수입액	10,578	12,603	16,764	17,003	1.4

주) 1~11월 누적집계 결과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013.

#### 2.1.2 식량자급률 저하와 농산물가격의 상승

##### ○ 식량자급률 동향

- 세계 여러 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비교하여 보면 <표 2-2>와 같음.
- 선진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30%를 하회하여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같이 낮은 자급률 또한 하락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낮은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음
  -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이 2010년에 27.6%에 불과한 것을 2015년

30%, 2020년 32%로 끌어올리고, 조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도 2010년에 38.6%인 것을 2015년 45%, 2020년 50%로 끌어올리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밭농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표 2-2> 주요 국가의 식량자급률(2009)

구분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미국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	205.6	190.6	143.5	129.4	116.4	114.7	100.0	99.9	82.2	51.4	30.7	26.7

<표 2-3>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정책목표치

구분	2010년 자급률(%)	2015년 기준 목표치 (2007년 설정)	2015년 수정 목표치	2020년 목표치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27.6	25	30	32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	38.6	-	45	50
곡물자주율 (해외곡물 포함)	28.1	-	55	65
칼로리 자급률	50.1 (2009년 기준)	47	52	55
주식 자급률 (쌀+밀+보리)	64.6 (2008년 기준)	54	70 (보리 제외)	72
쌀	104.6	90	98	98
보리 <sup>2)</sup>	25.4	31	31	31
밀 <sup>2)</sup>	1.7	1	10	15
콩 <sup>2)</sup>	32.4	42	36	40
서류	98.7	99	99	99
사료	37.5	-	41.2	44.4
- 배합사료	24.7	-	24.2	24.6
- 조사료	82.0	85	87.0	90.0
채소류	92.5	85	86	83
과실류	81.1	66	80	7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II). p. 629.

2)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자급률임

○ 국제곡물가격 동향

- 톤당 200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대두 가격이 2007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33달러로 급등하였음
- 2010년에 소폭 하락하였던 대두 가격이 2011년에는 5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2년 8월에는 600달러를 상회하기도 하였음
- 밀과 옥수수 가격도 대두 가격 변동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톤당 100달러 내외를 유지하던 밀과 옥수수 가격이 2008년에 200~30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으며, 2011년에도 200달러를 상회하였음
-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외에도 개도국의 식량용과 사료용 수요 증가, 바이오에너지용 수요 증가, 수출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국내 농산물 가격 동향

- 2009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8% 상승한 반면에 농축수산물물은 6.4% 상승하여 상승률이 매우 높고, 2012년에도 2010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표 2-4> 물가 변동 추이

단위: %(전년, 전기 대비 증감률)

구 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2.8	3.0	4.0	1.0	0.2	0.3	0.3	2.2
농축수산물	6.4	10.0	9.2	4.3	-0.2	0.6	-1.2	3.1
생산자	-0.2	3.8	6.1	1.5	-0.2	-0.9	-	-

자료: 한국은행

○ 농산물 소비 패턴의 변화

- 쌀 소비량 감소
  - 식량용 쌀 소비량 추이를 보면, 2008년 3,755천톤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12년에는 3,560천톤을 기록하고 있음
  - 가공, 종자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감모 등 외생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2011년을 제외하면, 가공용 수요가 증가추세임에도 전체 수요량은 2012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5> 연도별 쌀 수요량

단위: 천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량	3,755	3,683	3,678	3,612	3,560
가공	436	366	549	644	650
종자	41	40	39	37	37
수출	-	3	4	4	4
감모 등	443	702	437	882	359
계	4,675	4,794	4,707	5,179	4,610

- 쌀 이외 농축산물 소비 증가

-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에 따른 육류 섭취의 증가와 각종 성인병의 증가와 함께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쌀 이외 잡곡,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쌀 이외 곡물 중에서 국내 재배면적이 크고, 소비량도 증가하는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콩을 들 수 있는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변동이 심한 편이나, 2009년 이후 재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콩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1인당 채소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였으나, 과일 소비량은 조금씩 증가하였음. 1인당 소비량이 약간 감소한 경우,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반드시 절대 소비량이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소비량과 생산량을 고려한 수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과물의 수입 증가와 함께 채소와 과일의 자급률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소득의 안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2.1.3 발농가 지원정책으로서 발농업직불제의 도입

- 발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도에 발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시범사업 첫해인 2012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하계와 동계작물을 포함하여 19개 품목인데, 2013년 지원 대상으로는 여기에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임. 2012년 시범사업에서는 동계작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12개 품목이 지원되었음.
- 2012년 발직불사업 지원대상: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고,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울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2013년에 추가된 품목: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지원대상: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로서 지원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며, 지원면적은 농가의 경우 1,000㎡ ~ 4ha 이하이고, 농업법인의 경우 1,000㎡ ~ 10ha 이하임. 단,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대상 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 후 ha 당 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함

#### ○ 밭농업직불제의 의의

- 밭농업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밭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점 외에도 논밭의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2012년도에 밭농업직불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쌀소득보전, 친환경농업, 경영이양, 쌀생산조정 등과 같이 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만 1,000ha에 불과함

- 그밖에 부분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가 일부 밭에도 적용되고 있을 뿐임
- 한편, 밭농업직불제가 논밭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함에도 지원받는 밭작물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작목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있음

## 2.2 밭농업의 일반적 특징<sup>3)</sup>

### 2.2.1 농지이용형태

○ 밭농업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논농업과 달리 물빠짐이 좋은 농지에 물을 담지 않은 채로 영농을 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임

- 밭에는 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논에 비해 연작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 휴경이나 돌려짓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됨

-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돌려짓기 작물로 이용되는 것은 주작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맥류의 후작으로 콩을 재배하는 것이 전형적인 돌려짓기 형태임

·최근에는 수익성 추구 경향으로 맥류 면적은 줄어들고 마늘과 양파 등의 재배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후작으로 콩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임

·옥수수가 주작목인 경우, 후작으로 두류, 무·배추 등이 많이 재배되는데, 특히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후작으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헤어리벳치 등이 많이 재배됨

- 돌려짓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밭농업의 특성에 맞게 밭직접지불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논농업과 달리 재배작물이 빈번하게 바뀌는 밭농업의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기준년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1년만 재배해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기준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경작의 제한성

-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 노동력 중심의 영농을 하는 일반 농가가 밭농업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작물별 농작업 시간을 살펴보면 논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인 벼의 경우는 전국평균이 10a당 14.2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콩은 22.8 시간, 양파는 99.9 시간, 마늘은 121.3 시간, 노지고추는 159.4 시간으로 노지고추의 농작업 시간은 벼의 11.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밭 농업이 노동집약적이

---

3) 우리나라의 농업을 세분하면 경종농업, 과수, 축산, 양봉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경종농업은 다시 논 농업과 밭 농업으로 구분되며 밭 농업은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분류될 수 있는데 밭 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작물은 밭 농업에서 노지재배 작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밭 농업에서의 노지재배 특징 중심으로 분석함.

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에 시설농업 등을 통하여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작업 효율을 높이는 경우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짐

#### ○ 밭 이외 타 지목의 이용이 많음

- 밭작물은 비교적 척박한 토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지목이 밭이 아닌 논, 임야, 대지 등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비율이 높음

### 2.1.2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성

#### ○ 밭작물의 생산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생산량의 변동이 심하고, 가격변동도 심하여 소득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밭작물은 동일한 작물이라도 지역별, 품종별, 재배방법, 판매방법 등에 따라 생산량과 소득의 차이가 있고 작물별로는 계절 및 사회환경과 작물수급상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여 가격의 차이가 많음.
- 특히, 야채의 경우에는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하기 어려워 생산량 변동이나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한 특징을 보임

### 2.2.3 밭농지의 질적 측면

#### ○ 기계화 작업 불리

- 우량농지와 열등농지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필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 많고, 경사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농기계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음
- 논 농업은 2011년말 현재 수리안전답율이 80.4%이고 벼농사 농작업 기계화율이 91.5%인데 밭 농업은 밭기반정비사업 실적이 93,749ha로 목표면적 180천ha의 52.1%이고 총 밭 면적의 12.7%에 불과함

#### ○ 높은 수익성

- 주곡인 쌀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에, 곡물, 야채 등 밭작물에 대한 수요와 소비는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수익성이 논농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이러한 특징은 논작물(벼)과 밭작물의 단위면적당 소득과 논, 밭의 임차료 비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농지 임차료는 농지의 농업적 이용에 따른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

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작물재배의 관점에서 농지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

- 지목별, 진흥지역 유무별 임차료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논보다 밭이 높고, 밭보다 과수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같은 밭이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체 평균으로 보면 진흥지역보다 진흥지역 밖이 임차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밭농업 적합성 측면에서의 농지의 품질은 논에 비해 우수한 편이고, 농업 수익성의 관점에서는 밭이 논에 비해 유리하며, 밭농업이 농가소득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많음
  - 물론, 밭농지 중에는 경사도가 높아 영농조건이 불리한 곳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임대차가 발생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영농조건이 유리한 곳이 많으므로 영농조건이 불리한 밭은 분석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결론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며, 밭기반 정비 확충 등을 통하여 영농조건이 불리한 밭을 줄여나가는 정책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표 2-6> 농지 특성별 임차료 비교

단위 : 원/m<sup>2</sup>

구 분	진흥지역내			진흥지역외		
	논	밭	과수원	논	밭	과수원
여주군	289.9	311.4	-	290	374.8	-
홍천군	245.3	170.5	-	233	65	-
음성군	267.6	403	-	258.7	429	-
서산시	262.1	362	-	300.5	472	-
고창군	289.8	233.8	-	276.4	511.8	-
해남군	232.5	222.1	-	226.9	211	-
안동시	269.6	521	458.8	273.2	148	528.3
밀양시	439.1	980	-	429.5	1188	-
평 균	287.0	400.8	458.8	286.0	425.0	528.3

주) 2010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실거래 자료임

## 2.2.4 밭농가의 농업경영 형태

- 다양한 경영규모의 농가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자급 목적의 소규모 경영에서부터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문농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 농가도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경영 조직체라고 볼 때, 농가경영체는 농업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경영여건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짐
- 가격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논농업에 의한 벼 재배를 통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반면, 가격변동이 큰 밭농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음
  - 그렇지만, 상당한 수의 영세 고령농가 중에는 밭농업을 통해서도 소규모 자가소비 목적의 작물재배와 같이 경영의 효율성보다는 자급 자족적인 생존농 관점이 발현되고 있음
  - 특히, 중소규모의 영세한 밭농가의 경우에는 수도작과의 겸작을 통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음
- 밭농업직접지불제는 특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가족 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2.5 밭 재배작물의 작부체계

- 엽채류 등의 작물은 생육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이들과 결합한 다양한 작부체계<sup>4)</sup>를 채택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 및 수익성을 높이거나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
- 이모작 이상의 다모작 또는 다기작 형태의 다양한 작부체계를 채택함으로써 동일 필지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물을 담수하여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물의 작용에 의해 지력이 회복되는 논농업과 달리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휴경이나 돌려짓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작부체계는 겨울작물인 보리와 밀을 재배한 후

4) 작부체계란 일정한 토지에 몇 가지 작물을 조합하여 일정한 순서로 순환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작물의 전후 작물의 조합과 동시에 간작, 혼작 등의 공간적인 조합을 의미함.

여름작물인 벼와 콩을 재배하거나 콩밭에 수수를 혼작하는 등 각종 작물의 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형태이었음

- 최근에는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작물을 집중 지배할 때 발생하는 토양 병해충이나 저력저하에 따른 연작장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작부체계가 시도되고 있음
- 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작부체계의 예로는 “① 봄감자-콩”, ② “콩-봄무/봄배추/마늘/양파”, ③ “콩과 옥수수의 혼작”, ④ “옥수수-콩/팥/녹두/가을무/가을배추/월동배추/헤어리벳치 등”, ⑤ “참깨-옥수수/콩/호밀/땅콩/배추<sup>5)</sup> 등”, ⑥ “녹비작물용 맥류(보리, 호밀)-클로버/헤어리벳치” 등이 있음
- 한편, 밭작물은 연작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휴경 및 윤작을 하고 과수원이나 임야 등에서 과수와 나무사이의 간작을 하는 경우가 많음

## 6) 지역특화 및 주산단지화

- 농지에 물을 담아 재배하는 논벼와 달리, 습기가 적은 마른 농지에 재배하는 밭작물의 경우 온도와 기후, 토양 양분상태, 토양의 물리적 특성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역별로 재배가 특화된 작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재배기술과 마케팅 기법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발달한 후 시간을 두고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밭작물 재배가 지역특화 및 주산단지화 하는 경향이 강함

---

5) 이밖에도 참깨와 작부체계가 가능한 작물은 봄감자, 봄무, 가을무, 봄배추, 가을배추, 토마토(축성), 참외(시설), 수박(반축성), 시금치(시설), 마늘, 양파, 생강, 헤어리벳치 등이 있음.

## 2.3 밭농업의 현황과 변화추이

### 2.3.1 밭경지면적

- 우리나라 총경지면적은 2011년 1,698천ha로 2002년 대비 164천ha가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경지면적이 감소한 주된 사유는 논 경지면적이 178천ha 감소하였기 때문임. 밭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중에 14천ha가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쌀 소비량 감소 등에 따른 쌀 소득 감소로 쌀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밭 작물재배를 위한 밭 면적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2-7> 연도별 경지면적

단위: ha

연도	계	%	논	%	밭	%
2002	1, 862, 622	100.0	1, 138, 408	61.1	724, 214	38.9
2003	1, 845, 994	100.0	1, 126, 723	61.0	719, 271	39.0
2004	1, 835, 634	100.0	1, 114, 950	60.7	720, 684	39.3
2005	1, 824, 039	100.0	1, 104, 811	60.6	719, 228	39.4
2006	1, 800, 470	100.0	1, 084, 024	60.2	716, 446	39.8
2007	1, 781, 578	100.0	1, 069, 932	60.1	711, 647	39.9
2008	1, 758, 795	100.0	1, 045, 991	59.5	712, 804	40.5
2009	1, 736, 798	100.0	1, 010, 287	58.2	726, 511	41.8
2010	1, 715, 301	100.0	984, 140	57.4	731, 161	42.6
2011	1, 698, 040	100.0	959, 914	56.5	738, 126	43.5
증감 (‘02-’11)	-164, 582		-178, 494	-15.7	13, 912	1.9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밭농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표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분포해 있음
  - 2011년말 현재 전국의 밭 경지면적은 총 738천ha인데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로 나누어 보면 1개 시·군·구의 평균 밭 경지면적은 3,237ha임
  - 이 중에서 밭농업을 주로 하는 시·군을 파악하고자, 시·군 당 밭 경지면적이 5천ha 이상인 시·군을 선별하여 보면 <표 2-7>과 같음

여기에 속하는 곳은 전국 시·군·구의 23.7%에 해당하는 54개 시·군이고 이들 시·군의 밭 경지면적이 전국 밭 경지면적의 58.9%를 차지하고 있음

<표 2-8> 밭 면적 5천ha 이상인 시·군

단위: ha

시 도	시 군	밭 면적	시 도	시 군	밭 면적	
경기	평택시	5,554	전남	여수시	5,471	
	포천군	6,434		순천시	7,498	
	여주군	4,499		나주군	7,119	
	이천시	7,774		해남군	11,908	
	안성시	6,834		영암군	5,737	
	화성시	7,780		무안군	9,472	
(6)	소계	38,875		진도군	5,393	
강원	홍천군	8,279	(8)	신안군	9,312	
	횡성군	6,368		소계	61,910	
	영월군	5,878		경북	포항시	5,058
평창군	8,813	경주시	5,858			
정선군	6,953	김천시	9,418			
(5)	소계	36,291		안동시	12,789	
충북	충주시	8,805		영주시	8,262	
	제천시	7,736		영천시	10,043	
	청원군	6,941		상주시	10,988	
	옥천군	5,239		문경군	5,729	
	영동군	7,691		경산군	6,496	
	괴산군	7,792		의성군	8,402	
	음성군	7,435		청송군	5,885	
	단양군	5,083		청도군	6,348	
	(8)	소계	56,722		예천군	7,261
	충남	천안시	7,016		봉화군	8,333
서산시		5,489	(14)	소계	110,870	
논산시		6,150	경남	진주시	6,430	
금산군		5,525		밀양시	5,675	
(5)	소계	30,854	(2)	소계	12,105	
전북	정읍시	6,929	제주	제주시	30,290	
	완주군	6,253		(2)	서귀포시	28,707
	김제시	4,916			소계	58,997
	고창군	10,403				
(4)	소계	28,501	합계	(54)	435,125	

주: 부표 1. 시·군별 밭 경지면적 참조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2.3.2 밭농가 경영구조

### 1) 경영규모

-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2011년말 현재 총 농가수 1,163천호의 84.5%인 983천호이고 밭농가 호당 평균 밭 경지면적은 0.75ha이며 규모별로는 0.5ha 미만 농가가 38.9%로 가장 많고 0.5~1.0ha가 24.6%, 1.0~2.0ha가 20.3%로 2.0ha 이하 농가가 83.8%임

<표 2-9> 규모별 밭 농가

단위: 호

구 분	0.5ha 미만	0.5~ 1.0ha	1.0~ 2.0ha	2.0~ 3.0ha	3.0~ 5.0ha	5.0ha 이상	계
농가수	382,732	242,190	199,681	70,841	50,986	36,957	983,387
%	38.9	24.6	20.3	7.2	5.2	3.8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2) 밭농가의 연령 분포

- 밭 경영농가는 40~50세가 10.0%, 50~64세가 39.5%이며 65세~79세가 44.3%로 가장 많으며 80세 이상 농가도 4.4%를 차지하는 가운데, 밭 농가의 50%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10> 경영주 연령별 밭 농가

단위: 호

구 분	29세 이하	30- 40세	40- 50세	50- 64세	65- 79세	80세 이상	계
농가수	569	16,481	97,959	388,615	436,167	43,596	983,387
%	0.1	1.7	10.0	39.5	44.3	4.4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3) 밭 농지 소유 및 임차 현황

- 밭 농가의 농지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100% 본인 소유의 밭으로 밭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66.2%이고 본인 소유의 밭과 타인의 밭을 임차하여 밭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17.9%이며 100% 타인의 밭을 임차하여 밭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15.9%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1> 농지소유 형태별 밭 농가

단위: 호

구 분	100% 소유	75-100%	50-75%	25-50%	1-25%	100% 임차	계
농가수	651,277	28,208	64,939	51,545	31,566	155,852	983,387
%	66.2	2.9	6.6	5.2	3.2	15.9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4) 매출규모별 밭농가 현황

- 밭 농업에 의한 밭작물 판매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의 밭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가 50.5%로 절반을 차지하고, 판매하지 않고 자가소비하는 농가도 12.5%를 차지하여 영세한 규모로 밭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5천만원 이상의 밭작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7.5%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의 농가는 29.5%로 5천만원 이상 농가 비율의 4배에 달하여 밭농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적인 밭농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12> 판매금액별 밭 농가

단위: 호

구 분	판매없음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5천-1억원	1-2억원	2억원 이상	계
농가수	122,442	496,335	289,624	51,211	16,085	7,690	983,387
구성비 (%)	12.5	50.5	29.5	5.2	1.6	0.7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2.3.3 밭경지 이용실태

- 밭 경지이용률은 103.6%인데, 이와 같이 이용률이 낮은 것은 밭 면적에 과수, 수원지, 시설작물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채소 등 기타작물의 밭 경지이용률은 2기작, 3기작 등으로 높음
- 우리나라의 밭에는 채소(25.3%), 식량작물(20.3%), 과수(20.1%) 순으로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들 3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데 65.7%의 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밭 경지 이용면적 및 이용률

시도 별	경지이용 면적(ha)	경지이용률(%)							
		계	식량 작물	채소	특용 작물	과수	수원지	기타 작물	시설 작물
서울	494	80.7	4.9	11.3	2.3	3.3	10.9	0.3	47.7
부산	2,445	90.9	6.7	39.6	2.5	10.0	9.2	1.4	21.6
대구	4,472	97.3	11.6	19.1	10.0	28.1	10.6	0.3	17.6
인천	6,158	91.3	20.7	27.8	7.4	10.3	7.0	4.8	13.3
광주	3,977	104.9	11.5	18.2	9.6	15.8	8.5	9.9	31.2
대전	2,627	96.4	13.6	17.9	12.6	18.6	17.4	4.7	11.6
울산	3,899	87.7	13.5	21.2	5.3	29.3	4.6	7.2	6.5
경기	77,980	97.7	16.8	20.8	9.6	10.1	9.4	12.1	19.0
강원	67,610	99.5	30.8	34.3	10.5	3.1	3.8	12.1	4.9
충북	72,464	109.8	27.5	21.2	11.8	21.2	7.3	13.7	7.2
충남	69,952	108.2	20.7	26.9	13.1	11.7	7.9	13.1	14.8
전북	67,050	110.5	18.7	26.0	15.7	10.9	15.7	14.7	8.9
전남	129,926	115.4	26.0	41.9	11.4	15.7	6.4	8.2	5.8
경북	131,702	97.4	14.9	19.2	9.4	39.4	4.7	5.2	4.5
경남	56,417	94.7	15.1	18.1	9.3	32.6	8.2	3.6	7.7
제주	60,329	101.9	24.0	25.1	3.1	31.5	2.2	8.5	7.5
계 (%)	757,502	103.6 (100.0)	21.0 (20.3)	26.2 (25.3)	10.3 (9.9)	20.8 (20.1)	7.1 (6.9)	9.4 (9.1)	8.8 (8.4)

주: 1. 식량작물: 미곡(1.2)맥류(0.7) 잡곡(3.4) 두류(10.2) 서류(5.4)

2. 2010년 밭 면적 731,161ha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밭 경지에 유리하우스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면적은 64,217ha로 전국 밭 면적의 8.7%인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9,656ha로 가장 많고 작물별로는 과채류가 19,282ha로 전체 시설면적의 30.2%를 차지함
-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작물 재배면적은 FTA 등에 의한 농산물수입 확대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표 2-14> 시설작물 재배면적

단위: ha

시도	감자	엽채류	과채류	기타 채소	과수	기타 과수	화훼	기타	계
서울	17	51	35	127	3	1	29	29	292
부산	-	37	60	140	4	4	291	44	580
대구	-	242	335	173	12	-	25	22	809
인천	-	172	96	521	3	-	27	80	899
광주	5	129	433	311	10	3	11	282	1,184
대전	-	32	137	69	28	-	13	36	315
울산	-	33	60	127	-	-	-	70	290
경기	17	4,509	1,929	6,087	376	16	918	1,305	15,157
강원	14	188	1,170	621	55	10	236	1,020	3,314
충북	14	378	2,359	749	663	11	221	346	4,741
충남	114	1,058	4,276	1,786	272	87	311	1,652	9,556
전북	177	718	2,045	561	309	23	217	1,333	5,383
전남	206	476	2,210	1,411	280	202	140	999	5,924
경북	49	1,019	2,149	977	814	33	137	933	6,111
경남	36	167	2,026	1,072	116	62	161	963	4,603
제주	29	13	62	98	3,851	497	203	306	5,059
계	678	9,222	19,382	14,830	6,796	949	2,940	9,420	64,217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 경지면적에 대한 휴경률은 3.2%이고 휴경면적은 54.6천ha인데, 그 중 밭 경지의 휴경률은 4.4%로 논(2.3%) 전체경지 휴경률의 2배가 됨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평균 휴경면적은 45.1천ha인데, 그 중

밭 경지가 28.1천ha로 6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 휴경률은 5개년 평균 3.9%로 전체 경지면적의 휴경률(2.6%)보다 높음

-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526ha로 휴경면적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곳은 경기도로 1,800ha임
- 이와 같이 밭의 휴경면적이 많은 이유는 밭작물의 경우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가 특히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2-15> 연도별 휴경농지 현황

단위: 천 ha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경지 면적	계	1,781.6	1,758.8	1,736.8	1,715.3	1,698.0	-
	논	1,069.9	1,045.9	1,010.3	984.1	959.9	-
	밭	711.6	712.8	726.5	731.2	738.1	-
휴경 농지 면적	계	37.2	38.0	45.4	50.5	54.6	45.1
	논	14.7	14.3	13.9	20.2	22.4	17.1
	밭	22.5	23.7	31.5	30.4	32.2	28.1
휴경 률 (%)	계	2.1	2.1	2.7	2.9	3.2	2.6
	논	1.4	1.3	1.4	2.1	2.3	1.7
	밭	3.1	3.3	4.6	4.2	4.4	3.9

자료 :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주 : 휴경률은 전년도경지면적에 대한当年 휴경면적 비율임

### 2.3.4 주요 밭작물의 재배면적

#### 1) 밭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작물

- 2011년 밭 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작물로 선정된 19개 작물과 2013년 추가 선정된 7개작물 등 26개 대상작물의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26개 작물의 재배면적은 2011년말 현재 287천ha(조사료 재배면적 제외)로 전체 밭 면적의 38.9%이며 대상작물 중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큰 작물은 콩으로 대상작물 재배면적의 23.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5개년(2007~2011년)간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밀, 기타잡곡, 봄감자, 양파, 들깨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옥수수, 메밀, 녹두, 기타두류, 마늘, 땅콩, 파는 재배면적이 유지되고 있으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팥, 고추, 참깨, 고구마는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연도별, 작물별 재배면적

작물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겉보리	977	927	969	582	427	776
쌀보리	1,708	1,898	1,861	1,474	1,269	1,642
맥주보리	4,786	4,577	4,591	2,820	1,236	3,602
밀	213	193	407	2,354	2,437	1,121
호밀	-	-	-	-	-	-
조	1,114	1,041	1,090	..	..	1,082
수수	1,463	997	1,521	..	..	1,327
옥수수	15,476	16,923	14,479	14,720	14,384	15,196
메밀	2,249	2,112	2,099	2,016	2,328	2,161
기타잡곡	4,944	3,576	3,449	6,632	8,257	5,372
콩	68,438	68,200	65,432	64,603	65,040	66,343
팥	4,523	4,834	4,668	4,056	3,325	4,281
녹두	2,042	1,467	1,438	1,505	1,580	1,606
기타두류	4,680	4,481	5,306	5,509	4,626	4,920
마늘	19,971	21,103	18,947	15,956	17,138	18,623
고추	49,175	44,310	41,178	41,205	38,505	42,875
참깨	29,676	27,283	33,124	25,924	24,376	28,077
땅콩	3,190	3,257	3,970	5,227	4,292	3,987
소계	214,625	207,179	204,529	194,583	189,220	202,027
봄감자	14,618	15,081	16,018	18,501	20,593	16,962
가을감자	2,407	2,326	2,082	2,454	2,075	2,269
고구마	20,374	18,747	19,980	18,305	17,145	18,910
파	13,952	14,650	13,211	13,172	14,015	13,800
양파	12,057	9,385	11,614	13,308	13,994	12,072
유채	607	1,008	853	-	-	
들깨	26,853	25,150	28,392	31,948	30,452	28,559
소계	90,868	86,347	92,150	97,688	98,274	93,065
합계	305,493	293,526	296,679	292,271	287,494	236,446

주: 1.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파(대파, 쪽파)  
 2. 호밀은 2003년 이후 재배면적자료가 없음.  
 3. 조, 수수는 2010년부터 기타잡곡으로 분류  
 자료: 농업조사. 통계청. 2011

## 2) 주산단지 재배작물

- 밭작물 주산단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에 의거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을 지정, 고시하고 있는데 김장배추, 김장 무, 참깨, 고랭지 감자, 고추,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양파, 마늘, 봄감자 등 11개 작물에 대한 주산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주산단지 대상작물 11개 중 9개 작물은 26개 밭 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작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김장배추와 김장 무 2개 작물은 밭 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작물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해당 작물의 주산지 시·군 수가 적고(김장배추 6개 시·군, 김장 무 5개 시·군) 대규모 기업농 형태의 재배농가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1년말 김장배추의 재배면적은 17,326ha, 김장무의 재배면적은 9,748ha로 두 작물의 재배면적이 전체 밭 면적의 3.7%가 되고 주산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김장배추가 10.9%, 김장 무가 41.1%로 주산단지에 속하지 않은 면적도 상당히 많고, 두 작물이 김치의 원료로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밭 농업 직접지불제의 대상작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맥류 주산단지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쌀보리가 15천ha로 가장 많은데 전국 재배면적의 84%가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산단지 중에서는 전라북도가 재배면적이 60%로 가장 많음. 전국 재배면적 중 주산단지로 지정된 비율이 가장 높은 작물은 맥주보리로 72%임

<표 2-17> 맥류 주산단지 재배면적

도 별	시 군	겉보리(ha)	쌀보리(ha)	맥주보리(ha)	계(ha)	
전북	군산시	73	2,958	-	3,031	
	익산시	29	1,256	-	1,285	
	김제시	601	2,470	-	3,071	
	부안군	276	1,891	-	2,167	
	고창군	-	280	-	280	
	소계	979	8,855	-	9,834	
전남	나주시	-	439	334	773	
	보성군	-	689	679	1,368	
	장흥군	-	779	505	1,284	
	강진군	-	745	592	1,337	
	해남군	-	942	1,141	2,083	
	영암군	-	454	181	635	
	함평군	-	421	139	560	
	영광군	-	1042	-	1,042	
	장성군	-	5	-	5	
	신안군	-	306	-	306	
	고흥군	-	-	430	430	
	완도군	-	-	19	19	
	소계	-	5,822	4,020	9,842	
	경북	경주시	95	-	-	95
	소계		95	-	-	95
경남	밀양시	1,587	-	-	1,587	
	합안군	182	-	-	182	
	창녕군	225	-	-	225	
	합천군	137	-	-	137	
	사천시	-	-	231	231	
	하동군	-	-	184	184	
	소계	2,131	-	415	2,546	
제주	제주시	-	-	584	584	
소계		-	584	584		
계		3,205	14,677	5,019	22,901	
전국		4,591	17,469	6,994	29,054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고추는 전국적으로 42,574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23,422ha로 55.0%이고 지역적으로는 경상북도에서 36.9%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경상북도 안동시가 1,941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표 2-18> 고추 주산단지 재배면적

도별	시·군	면적(ha)	도별	시·군	면적(ha)
경기	화성시	504	전남	순천시	292
소계		504		나주시	424
강원	영월군	486		화순군	296
소계		486		해남군	781
충북	충주시	354		무안군	300
	제천시	799		영광군	536
	청원군	526		진도군	298
	보은군	401		신안군	720
	괴산군	757	소계		3,647
	음성군	296	경북	경주시	345
	단양군	640		안동시	1,941
소계		3,773		영주시	578
충남	공주시	363		영천시	248
	청양군	527		상주시	454
	홍성군	304		의성군	984
	예산군	296		청송군	774
	태안군	525		영양군	1,476
	당진군	273		예천군	572
소계		2,288		봉화군	1,277
전북	정읍시	806	소계		8,649
	김제시	272			
	완주군	308			
	진안군	659			
	무주군	377			
	임실군	508			
	고창군	810			
	부안군	335	합계	41	23,422
소계		4,075	전국		42,574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마늘은 전국적으로 28,278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20,021ha로 70.8%이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38.2%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고흥군이 2,396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 참깨는 전국적으로 25,649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7,809ha로 30.4%이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55.0%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신안군이 1,820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표 2-19> 마늘, 참깨 주산단지 재배면적

시도별	시. 군	마늘(ha)	참깨(ha)
충북	충주시	-	335
소계		-	335
충남	서산시	790	-
	태안군	922	-
소계		1,712	-
전남	고흥군	2,396	-
	해남군	1,692	879
	무안군	896	1,124
	함평군	349	474
	신안군	2,319	1,820
소계		7,652	4,297
경북	영천시	1,011	-
	군위군	461	297
	의성군	1,750	647
	안동시	-	758
	예천군	-	556
소계		3,222	2,258
경남	창녕군	2,409	-
	남해시	1,341	-
	합천군	669	-
소계		4,419	-
제주	제주시	1,171	919
	서귀포시	1,845	-
소계		3,016	919
계		20,021	7,809
전국		28,278	25,649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양파는 전국적으로 19,126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4,485ha로 23.4%이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주산단지 면적의 64.8%가 재배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무안군이 3,703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 봄 감자는 전국적으로 25,649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7,809ha로 30.4%이고 지역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주산단지 면적의 55.0%가 재배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신안군이 1,820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 고랭지 감자는 전국적으로 3,784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3,541ha로 93.6%이고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주산단지 면적의 100.0%가 재배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군이 2,095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표 2-20> 고랭지 감자, 양파, 봄감자 주산단지 재배면적

단위: ha

고랭지 감자		양 파		일반 봄감자	
시 군	재배면적	시 군	재배면적	시 군	재배면적
강원 강릉	365	전남 고흥	795	강원 강릉	486
강원 홍천	358	전남 해남	1,444	충남 당진	778
강원 횡성	229	전남 무안	3,703	충남 서산	590
강원 평창	2,095	전남 함평	1,531	전북 남원	314
강원 정선	241	전남 신안	2,680	전남 보성	814
강원 인제	253	경북 군위	286	경남 밀양	266
		경북 의성	76	제주 제주	553
		경북 영천	163	제주서귀포	684
		경북 청도	236		
		경남 창녕	1,457		
		경남 합천	1,557		
		경남 함양	668		
		제주 제주	1,063		
계	3,541	계	15,659	계	4,485
전국	3,784	전국	22,976	전국	19,126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김장배추는 전국적으로 17,326ha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1,889ha로 10.9%이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55.0%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신안군이 1,820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 김장 무는 전국적으로 9,748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중 재배면적이 5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주산단지 면적은 4,005ha로 41.1%이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주산단지 면적의 54.4%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나주시가 1,620ha 규모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음

<표 2-21> 김장배추, 김장 무 주산단지 재배면적

단위: ha

김장배추		김 장 무	
시 군	재배면적	시 군	재배면적
충북 제천	174	충남 당진	334
충남 홍성	423	전북 고창	1,380
충남 당진	437	전북 부안	114
전북 고창	313	전남 나주	1,620
전남 나주	267	전남 영암	557
전남 영암	275		
계	1,889		4,005
전국	17,326	전국	9,748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 2011

### 3) 지역특화 밭작물

- 지역별로 특화된 노지 밭작물은 생강, 노지수박, 무, 배추, 양배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김장배추의 경우 5개 지역에서 전국 재배면적의 32.7%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난 5개년 동안 유지하여 오고 있음.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전남 해남군으로 5개년 평균 재배면적이 4,298ha로 전국 재배면적의 24.8%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2> 김장배추 특화지역 재배면적

단위: ha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충남 당진	389	396	· ·	· ·	480	422
전북 고창	583	535	501	431	411	492
전남 나주	230	183	144	274	305	227
전남 영암	430	430	451	322	317	390
전남 해남	4,536	3,755	4,035	4,235	4,933	4,298
계	6,168	5,299	5,131	5,262	6,446	5,666

자료: 각 시·군 통계자료

- 무의 경우 지난 5개년 동안 5개 지역에서 전국 재배면적의 25.2%에 해당하는 면적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데, 가장 면적이 많은 지역은 전북 고창군(1,001ha)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3> 김장무 특화지역 재배면적

단위: ha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충남 당진	456	530	426	455	429	459
전북 고창	1,263	1,117	986	941	702	1,001
전북 부안	106	331	276	197	233	228
전남 나주	462	437	143	187	267	299
전남 영암	583	482	528	398	369	472
계	2,870	2,897	2,359	2,178	2,000	2,461

자료: 각 시·군 통계자료

## 2.3.5 주요 발작물의 소득변화

### 1) 발작물의 농업소득 비중 변화

- 농업총수입에서 논작물과 발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2002년에 발작물 대비 43%를 차지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9.4%를 차지함
  - 반면에, 발작물은 2002년에 논작물 대비 57%에서 2011년 70.6%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여, 농가의 농업소득에서 발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2배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24> 논작물과 발작물의 농업총수입

단위: 천원

구 분	농업총수입 (%)	논작물(미국)	%	발작물	%
2002	17,393 (100.0)	7,471	43.0	9,922	57.0
2003	18,414 (100.0)	8,049	43.7	10,365	56.3
2004	21,456 (100.0)	8,653	40.3	12,803	59.7
2005	19,952 (100.0)	7,264	36.4	12,688	63.6
2006	20,067 (100.0)	7,578	37.8	12,489	62.2
2007	20,307 (100.0)	7,296	35.9	13,011	64.1
2008	19,942 (100.0)	7,364	36.9	12,578	63.1
2009	19,393 (100.0)	6,522	33.6	12,871	66.4
2010	20,318 (100.0)	5,368	26.4	14,950	73.6
2011	21,276 (100.0)	6,254	29.4	15,022	70.6

주) 논작물은 미국을 의미하고, 발작물에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기타, 부산물이 포함되며, 축산과 농업잡수입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 2) 발농업직불제 대상작물의 소득변화

- 주요작물의 소득변화는 2013년 발 직불금지원대상 작물 중 재배면적이 많고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에서 매년 소득조사를 하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풋옥수수, 콩, 마늘, 고추, 참깨 등 14개 작물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의 소득변화를 분석하였고 화폐의 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모든 가격은 생산자 물가지수에 의한 2011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된 14개 주요 작물의 5개년(2007년~2011년)평균 소득은 1,080천원/10a으로 나타났으며 14개 주요작물의 평균 조수입은 1,984천원/10a으로 2007년 대비 2011년에는 2.5%가 증가하였고 경영비는 904천원/10a으로 2.4%가 증가하였으며, 자가노력비는 366천원/10a으로 2.6%가 감소였고 생산비는 1,270천원/10a으로 3.6%가 증가하였음.
- 2011년 작물별 평균 소득은 2007년도와 같게 나타났으나, 작물별로 편차가 매우 큼
  - 2007년보다 2011년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작물은 마늘로 188.5%가 증가하였고, 양파 148.7%, 노지고추 139.8%, 고구마 123.3%, 봄감자 120.0%, 콩 117.6% 순으로 증가하였음
  - 반대로 2007년보다 2011년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작물은 대파로 2007년 소득의 41.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맥주보리 59%, 쪽파 62.2%, 쌀보리 67%, 가을감자 80.3%, 겉보리 88.3% 순으로 감소하였음
- 밭에는 다양한 작물이 복합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주산단지 등에 의하여 재배작물이 특화되어 있고, 동일한 작물이라도 지역, 품종, 재배법, 판매방법 등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으며, 작물별 수급상황에 따라서 주산물 가격의 차이가 많음
- 또한 밭 농가의 농지이용현황과 농가별 실 재배품목, 작물별 식부면적 및 주요 작물의 소득자료 등 밭 실태에 대한 통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밭 농업직접지불제도 및 각종 밭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밭 농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밭 관련 현행 D/B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5> 주요 작물의 소득 변화(2011년 불변가격)

단위: 천원/10a

작물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겉보리	197	212	242	127	174	190
쌀보리	233	210	154	111	156	173
맥주보리	257	264	228	120	152	204
팥옥수수	1,008	937	958	823	775	901
콩	551	545	609	676	648	606
마늘	1,858	1,459	1,409	3,415	3,052	2,238
노지고추	2,306	2,320	2,346	1,637	3,224	2,366
참깨	853	1,065	470	729	735	770
봄감자	884	1,212	1,121	1,002	1,024	1,048
가을감자	1,422	860	1,315	1,380	1,142	1,224
고구마	1,199	1,280	1,201	1,277	1,478	1,287
양파	1,279	2,984	2,395	2,481	1,902	2,209
대파	2,782	1,215	1,659	3,000	1,166	1,965
쪽파	2,587	1,830	2,136	3,020	1,609	2,237
평균	1,059	1,039	993	1,248	1,059	1,080

### 2.3.6 주요 발작물의 수급동향

#### 1) 식량작물 생산량 및 자급도

##### 가) 식량작물 생산량

- 2011년말 현재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0.40%가 감소하여 2002년 대비 85.3%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식량작물 재배면적도 2002년 대비 244천ha가 감소하였음.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작물은 맥류로서 54.6%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보리의 식용소비 감소와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벼 후작으로 보리를 재배하던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작물은 미곡으로 2002년도 대비 199천ha가 줄었는데 이것은 쌀 소비 감소와 쌀 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쌀 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임. 생산량 감소는 미곡이 85.7%, 맥류가 54.6%, 서류는 88.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두류는 105.2%, 잡곡은 101.2%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 2-26>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천ha, 천t

연도	계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잡 곡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02	1,300	5,596	1,053	4,927	81	218	99	135	39	231	28	85
'03	1,236	5,004	1,016	4,451	65	168	95	121	34	183	25	81
'04	1,233	5,669	1,001	5,000	63	190	100	156	42	236	27	88
'05	1,234	5,520	980	4,768	61	200	118	199	50	266	26	86
'06	1,180	5,300	955	4,680	58	154	101	170	41	215	25	82
'07	1,163	5,034	950	4,408	56	176	88	128	42	224	27	98
'08	1,145	5,498	936	4,843	56	180	87	147	40	223	26	104
'09	1,127	5,554	924	4,916	54	167	83	155	42	227	24	88
'10	1,095	4,836	892	4,295	51	120	83	119	44	216	25	85
'11	1,056	4,775	854	4,224	42	119	88	142	45	204	27	86

주: 생산량은 정곡기준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통계, 2012

- 식량작물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맥류 중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맥주보리로 2002년 대비 23천ha가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79천t 감소하였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등 맥류의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23%가 감소하여 2002년 대비 54.6%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겉보리는 41.4%, 쌀보리는 46.8%, 맥주보리는 22.5%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보리수매가 2002년에 생산량의 86.8%이던 것이 2011년에 10.7%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그러나 밀은 소비자의 국내 생산 농산품 선호 및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등으로 733%가 증가하였음

<표 2-27> 맥류 생산량

단위: 천ha, 천t

연도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02	81	218	12	29	36	94	30	89	2	6
'03	65	168	9	20	24	60	28	78	3	10
'04	63	190	9	23	27	81	24	73	4	13
'05	61	200	8	22	28	96	22	74	2	8
'06	58	154	8	20	25	65	24	64	2	6
'07	56	176	8	22	24	77	22	70	2	7
'08	56	180	8	22	26	82	19	66	3	10
'09	54	168	7	18	25	77	17	54	5	19
'10	51	120	5	12	21	43	12	26	13	39
'11	42	119	5	12	17	44	7	20	13	44

주: 생산량은 정곡기준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통계. 2012

○ 감자의 재배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고 생산량도 크게 변하지 않아 2002년 대비 93.4%수준이고, 고구마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 생산량은 2002년 대비 80.4% 수준임. 콩은 재배면적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늘어나 2002년 대비 112.2% 수준이고 옥수수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 생산량은 2002년 대비 101.4% 수준으로 나타남

<표 2-28>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생산량

단위: 천ha, 천t

연도	감 자		고 구 마		콩		옥 수 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02	25	666	15	317	81	115	17	73
03	20	498	14	269	80	105	17	70
04	25	643	17	345	85	139	18	78
05	33	894	17	283	105	183	15	73
06	24	631	17	286	90	156	14	65
07	20	574	21	352	76	114	17	84
08	21	605	19	329	75	133	18	93
09	21	591	21	351	70	139	15	77
10	25	617	19	299	71	105	16	74
11	27	622	18	255	78	129	16	74

주: 감자, 고구마 생산량은 생서 기준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통계. 2012

나) 전체 곡물자급도

- 2011년 전체 곡물의 자급률은 22.6%로 2002년보다 7.8%가 하락하였는데 보리쌀이 2002년 대비 37.9%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쌀은 2002년도에 자급하였으나 자급률이 83.0%이며 밀과 옥수수 자급률이 약간 상승하였고 두류와 서류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
- 앞으로 곡물의 수요는 식생활의 웰빙 트렌드와 고령층의 소비자 증가로 건강식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콩, 조, 팥과 같은 밭 작물의 곡물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 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표 2-29> 전체 곡물 자급도

단위: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8
'04	26.8	96.5	54.1	0.4	0.8	7.1	97.1	7.2
'05	29.4	102.0	60.0	0.2	0.9	9.7	98.6	10.0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	27.2	95.8	51.2	0.2	0.7	11.2	98.4	10.0
'08	27.8	94.3	38.6	0.4	1.0	8.6	98.3	8.1
'09	29.6	101.1	45.4	0.5	1.2	9.9	98.7	9.6
'10	27.6	104.6	24.3	0.9	0.9	10.1	98.7	9.7
'11(P)	22.6	83.0	22.5	1.1	0.8	6.4	97.0	6.7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2012

2) 발작물 수급실태

가) 맥류

(1) 결보리 수급실태

- 결보리의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것으로서 수입량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2000년에는 수입량이 42천톤으로 제일 많았고, 이에 따라 공급량도 64천톤으로 가장 많았음
- 수요량은 전년도 부족량 및 이월량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량의 전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자급률 계산을 단순화하였음. 이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수입량이 많은 2000년에 자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생산량은 2001년에 30천톤으로 최대치이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12천톤의 생산량으로 최소치를 보이고 있음

<표 2-30> 결보리 수급 실태

단위: 천톤

연도	수요량	공급량	공 급		자급률 (%)
			생산	수입	
2000	64	64	22	42	34
2001	53	53	30	23	57
2002	29.4	29.4	29	0.4	99
2003	46	46	20	26	43
2004	49	49	23	26	47
2005	49	49	22	27	45
2006	26	26	20	6	77
2007	32	32	18	14	56
2008	40	40	22	18	55
2009	33	33	18	15	55
2010	39	39	12	27	31
2011	35	35	12	23	34

자료 : 통계청

## (2) 쌀보리 수급실태

- 전년도 이월량을 고려한 식량공급량은 2010년 470천톤, 2011년 434천톤으로 수요량 333천 톤에 대한 자급률은 25.4%와 23.7% 수준임
- 공급량 중에서 전년도 이월량을 제외한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수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은 각각 30%, 25%임
- 2010년과 2011년의 생산량 81천톤, 75천톤이 수요량에 대한 비율은 각각 24%, 22.5%수준으로 자급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임

<표 2-31> 쌀보리 수급 실태

단위: 천톤

구 분	2010	2011
[공 급]	470	434
○ 전년이월	204	137
○ 생 산	81	75
○ 수 입	185	222
- 식 용	170	205
- 사료용	15	17
[수요량]	333	333
○ 식 량	66	66
○ 가 공 용	241	242
- 식 용	-	-
- 양조용	241	242
○ 사 료	14	16
○ 종 자	5	3
○ 감모·기타	7	6
연말 재고	137	101
1인당 연간소비량(kg)	1.3	1.3
곡물자급도(%)	24.3	22.5
사료 등 제외 수요	319	317
식량자급도(%)	25.4	23.7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2

## (3) 맥주보리 수급실태

- 맥주보리의 생산량은 1995년에 140천톤을 정점으로 2005년 (74천톤)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7천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맥주보리의 자급률은 1998년에 71%를 정점으로 2010년까지 40~6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1년에는 생산량이 17천톤으로 감소하면서 자급률 또한 19%로 하향하였음

<표 2-32> 맥주보리 수급 실태

단위: 천톤

연도	수요량	공급량	공 급		자급률 (%)
			생산	수입	
1995	210	210	140	70	67
1998	128	128	91	37	71
2000	133	133	69	64	52
2001	176	176	89	87	51
2002	174	174	89	85	51
2003	132	132	78	54	59
2004	109	109	73	36	67
2005	110	110	74	36	67
2006	45	45	24	21	53
2007	45	45	22	33	49
2008	47	47	19	28	40
2009	28	28	17	11	60
2010	25	25	12	13	48
2011	37	37	7	30	19

자료 : 통계청

#### (4) 밀 수급실태

- 밀 생산량은 1980년에 92천톤을 생산하였으나 해외로부터 값싼 수입 밀이 들어오면서 밀 생산농가가 줄어들어 2009년까지 연평균 8천톤 정도로 명맥을 이어 오다가 2010년과 2011에는 각각 39천톤, 47천톤 으로 생산량이 증가되었음
- 2010년의 밀수입량의 절반 정도는 양축농가의 사료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곡물자급률은 0.9%에 불과하며,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7%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표 2-33> 밀 수급 실태

단위: 천톤

구 분	2010	2011
[ 공 급 ]	4,816	4,724
○ 전년이월	458	430
○ 생 산	39	47
○ 수 입	4,319	4,247
- 식 용	2,178	2,064
- 사료용	2,141	2,183
[ 수요량 ]	4,386	4,334
○ 식 량	1,139	1,121
○ 가 공 용	1,000	946
- 식 용	1,000	946
- 양조용	-	-
○ 사 료	2,124	2,196
○ 종 자	2	2
○ 감모·기타	121	69
연말 재고	430	390
1인당 연간소비량(kg)	32.1	31.4
곡물자급도(%)	0.9	1.1
사료등 제외 수요	2,262	2,138
식량자급도(%)	1.7	2.2

자료: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5) 호밀 수급실태

- 호밀은 1990년 이전까지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자급하였으며 1990년에는 353톤으로 급감하였으나 1995년부터 865,817톤의 수입량이 들어옴으로써 공급량이 증가하였음
- 2004년부터 353톤으로 감소한 수입량이 2011년에 520톤으로서 다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34> 호밀 수급 실태

단위: 천톤

연도	공급량	공 급		자급률 (%)
		생산	수입	
1975	9,447	9,447	-	100
1980	3,031	3,031	-	100
1985	2,478	2,478	-	100
1990	315	315	-	100
1995	865,830	13	865,817	100
2000	433,992	16	433,976	100
2001	3,850	13	3,837	100
2002	137,501	19	137,482	100
2003	107,335	6	107,329	100
2004	353	-	353	100
2010	564	-	564	100
2011	520	-	520	100

나) 두류

(1) 콩 수급 실태

- 콩은 2010년 소비량의 91.9%가 수입되고 있어 자급률이 10%미만인 작물로서 소비량이 크게 변하지 않음에 따라 생산량과 수입량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5> 콩 수급실태

연도	생산량 (천t)	수입량 (천t)	용도별 소비실적(천t)		
			계	사료용	식용·기타
'02	115	1,445	1,472	1,178	294
'03	105	1,641	1,674	1,258	416
'04	139	1,373	1,417	1,024	393
'05	183	1,330	1,513	990	523
'06	156	1,127	1,270	861	409
'07	114	1,185	1,362	896	466
'08	133	1,262	1,333	946	387
'09	139	1,200	1,342	950	392
'10	105	1,469	1,599	1,161	438
'11	129	-	-	-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 (2) 팔 수급 실태

- 1970년대에는 자급률이 80%이상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수요량의 증가로 자급률이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20%, 2011년에는 13%로 떨어졌음
- 1990년대에는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급률은 50%이하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생산량이 3,896톤으로 줄어들어 수입량은 25,508톤으로 증가함으로서 2005년 대비 생산량은 30%감소하였고 수입량은 12% 증가하였음
- 팔의 약리작용 즉, 산후에 젖이 잘 나오게 하고 소장 및 대장에 생긴 종양을 치료하며 췌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당뇨를 예방 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팔은 콩과작물로서 재배가 용이하고 병충해에 강하므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작목으로도 적합하여 유기농단지가 조성되면 수익성도 전망이 좋은 품목임

<표 2-36> 팔 수급 실태

연도	수요량(톤)	공급량(톤)	공 급(톤)		자급률 (%)
			생산	수입	
1970	266	268	232	36	87
1975	372	372	311	61	84
1992	31,702	31,702	21,578	10,124	68
1995	40,551	40,551	18,973	21,578	47
2000	35,547	35,547	11,314	24,233	32
2005	28,326	28,326	5,575	22,751	20
2010	30,355	30,355	4,561	25,794	15
2011	29,404	29,404	3,896	25,508	13

자료: 통계청

### (3) 녹두 수급 실태

- 녹두 자급률은 1995년 57%이었고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05년에는 12%였으나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 2011년에는 24%로 자급률이 상승하였음

<표 2-37> 녹두 수요 공급 실적

연도	공급량(톤)	공 급(톤)		자급률 (%)
		생산	수입	
1995	4,974	2,821	2,153	57
2000	9,264	2,089	7,175	23
2005	12,390	1,482	10,908	12
2010	7,615	1,543	6,072	20
2011	6,867	1,644	5,223	24

자료: 통계청

### (4) 땅콩 수급 실태

- 땅콩은 지난 5년간('07~'11년)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소비는 116.4%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은 218.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은 95.7%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자급도도 32.3%로 높아 졌음. 땅콩의 1인당 소비량은 지난 5년간 견과류의 소비증가에 따라 109.2%가 늘어나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농가의 고소득 작물로서의 땅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표 2-38> 땅콩 수급 실태

연도	수요			공급				1인당 연간 소비량	자급도
	계	소비	차년이월	계	전년이월	생산	수입		
	천t			천t				kg	%
'07	37.5	36.6	0.9	37.5	0.9	6.4	30.2	0.76	17
'08	39.0	38.0	1.0	39.0	0.9	7.0	31.1	0.77	18
'09	41.9	41.9	-	41.9	1.0	10.2	30.7	0.85	24
'10	38.9	38.4	0.5	38.9	-	10.2	28.7	0.80	27
'11	43.3	42.6	0.7	43.3	0.4	14.0	28.9	0.83	32.3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다) 잡곡류

(1) 옥수수 수급 실태

- 옥수수는 2010년 소비량의 99.2%가 수입되고 있어 자급률이 1% 미만인 작물로서 사료용이 소비량의 77.7%를 차지하고 있음. 소비량이 크게 변하지 않음에 따라 생산량과 수입량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9> 옥수수 수급 실태

연도	생산량 천t	수입량 천t	용도별 소비실적(천t)			
			계	사료용	옥분용	전분용
'02	73	8,552	8,830	6,661	199	1,918
'03	70	9,063	8,793	6,673	195	1,925
'04	78	8,671	8,586	6,566	154	1,866
'05	73	8,533	8,584	6,627	120	1,837
'06	64	8,670	8,734	6,756	100	1,656
'07	84	8,869	8,944	7,041	106	1,179
'08	93	9,318	8,658	6,942	79	1,637
'09	77	7,206	7,852	6,213	73	1,566
'10	74	9,059	9,131	7,097	73	1,961
'11	74	-	-	-	-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2) 수수 수급 실태

- 2009년의 시·도별 수수 생산량은 총2,562톤인데, 그 중 충북 (48.8%)이 생산량이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25.7%), 경북 (17.6%)의 순임

<표 2-40> 시·도별 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2009)

시·도	면적(ha)	생산량(톤)	생산량비중(%)
경기	13	18	0.7
강원	488	659	25.7
충북	641	1,250	48.8
충남	19	22	0.9
전북	25	34	1.3
전남	64	75	2.9
경북	252	451	17.6
경남	22	25	1.0
제주	0	0	0.0
광역시	21	25	1.0
계	1,547	2,562	100.0

주: 2010년부터 기타잡곡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2

- 1990년 재배면적 1,418ha, 생산량 1,976톤 대비 2000년에는 재배 면적 2,323ha, 생산량 3,394톤으로 약 1.6배가 증가하여 정점을 이루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2-41> 연도별 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1990	1,418	1,976
1995	1,141	1,548
2000	2,323	3,394
2005	2,293	3,189
2009	1,547	2,562

자료: 통계청

- 수수 수입은 2000년대에는 2004년 28,09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부터 3년간은 3,000여 톤으로 유지하다가 2011년에는 5,700톤으로 증가하였음

<표 2-42> 수수 수입량 단위: 천달러, 톤

연도	금액	중량
2002	757	4,331
2004	5,074	28,097
2005	1,338	4,612
2006	987	3,863
2007	3,564	13,608
2008	1,486	3,384
2009	1,886	3,978
2010	2,157	3,824
2011	3,696	5,700

자료: 통계청

- 수수의 자급률은 1990년이 2%로 가장 낮았으며 1995년에는 3%, 2000년 이후는 39~49%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90년대에 비해 자급률은 크게 상향되었음
- 2009년 수수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총 공급량은 6,540톤으로 자급률은 39%수준임. 전체 수요량 중 2/3가량이 식량가공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료용으로 사용됨

<표 2-43> 수수 수요 공급 실적 단위: 톤

연도	수요량	생산량	수입량	자급률
'90	94,267	1,976	92,291	2
95	54,282	1,548	52,734	5
00	6,860	3,394	3,466	49
05	7,801	3,189	4,612	41
09	6,540	2,562	3,978	39

자료: 통계청

### (3) 조 수급 실태

- 2009년 조 수요량은 2,807톤으로 이중 국내 생산량은 48.4%로 부족한 실정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노동력의 부족으로 더욱 더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됨
- 조는 잡곡 중에서 칼슘, 철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1의 함유량이 많으며,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간작 및 윤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병충해에 강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질 것임

<표 2-44> 조 수급 실태

연도	수요량(톤)	생산량(톤)	수입량(톤)	자급률 (%)
2009	2,807	1,360	1,447	48.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 (4) 메밀 수급 실태

- 메밀 자급률은 1990년에 79%이었고 그 후 계속 하락하여 2005년에는 37%였으나, 메밀이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49%로 자급률이 상승하였음

<표 2-45> 메밀 수급 실태

연도	수요량(톤)	공급량(톤)	공 급(톤)		자급률 (%)
			생산량	수입량	
1990	6,273	6,273	4,945	1,328	79
1995	9,617	9,617	6,994	2,623	73
2000	6,004	6,004	2,898	3,106	48
2005	6,063	6,063	2,243	3,820	37
2010	3,846	3,846	1,954	1,829	51
2011	4,826	4,826	2,370	2,456	49

자료: 생산량; 농림수산물부, 수입량; 통계청

(5) 율무 수급 실태

- 율무의 수입량은 2007년에 642톤으로 최대 물량이 수입되었으며 그 후 4년만인 2011년에는 11톤으로 크게 감소된 실정이나 향후 수입량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표 2-46> 율무 수입량

연도	금액	중량
1995	64	120
2000	34	216
2005	40	298
2006	60	442
2007	87	642
2008	64	453
2009	27	160
2010	17	63
2011	25	11

단위: 톤  
자료: 통계청

라) 채소류

- 2011년 배추, 무 등 채소류 재배면적은 261천ha로 2002년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9,747천t으로 2002년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채소류 중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작물은 고추로서 2002년 대비 59.7%수준이고 재배면적과 같이 생산량도 고추가 2002년 대비 39.9%수준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또한 시설채소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재배면적은 2002년 대비 83.1%수준으로 생산량은 90.3%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고추와 시설채소가 감소한 것은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채소류 생산량

연도	합 계		배 추		무		고 추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02	334	9,796	35	2,139	26	1,201	72	193
'03	328	10,068	43	2,459	29	1,341	58	132
'04	316	10,468	40	2,652	30	1,448	62	155
'05	298	9,584	34	2,182	23	1,093	61	161
'06	292	9,994	38	2,566	25	1,272	53	117
'07	278	9,394	31	2,080	22	1,017	55	160
'08	275	9,935	34	2,434	24	1,252	49	124
'09	262	9,888	31	2,390	20	1,106	45	117
'10	245	8,391	25	1,615	21	996	45	95
'11	261	9,747	36	2,681	23	1,237	43	77

단위: 천ha, 천t

<표 2-47> 채소류 생산량(계속)

연도	마 늘		양 파		기 타		시 설 채 소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02	33	394	15.3	933	70.0	1,826	83	3,110
'03	33	379	12.4	745	69.6	1,842	83	3,170
'04	30	358	15.6	948	58.4	1,621	81	3,286
'05	32	375	16.7	1,023	53.3	1,531	78	3,219
'06	29	331	15.3	890	56.0	1,609	76	3,209
'07	27	348	17.8	1,213	52.2	1,499	73	3,077
'08	28	375	15.4	1,035	50.6	1,497	74	3,218
'09	26	357	18.5	1,372	63.5	1,823	74	3,129
'10	22	272	22	1,412	64.9	1,261	66	2,740
'11	24	295	23	1,520	43	1,129	69	2,808

단위: 천ha, 천t

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2012

(1) 고추 수급 실태

- 고추는 지난 5년간('07~'11년)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소비는 58.3%수준이고 생산은 48.1% 수준으로 생산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고추의 수입은 소비량과 생산량 차이만큼의 수입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2-48> 고추 수급 실태

단위: 천t

연도	수 요				공 급			
	계	소 비	수출	이월	계	생 산	수입	이월
'07	239	230	8	1	239	160	76	3
'08	190	182	7	1	190	124	65	1
'09	186	175	10	1	186	117	69	-
'10	187	171	13	4	187	95	91	1
'11	139	134	5	3	139	77	62	3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2) 마늘 수급 실태

- 마늘도 지난 5년간('07~'11년)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하였지만 고추의 경우보다는 양호하며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소비는 94.3% 수준이고 생산은 84.7%수준으로 생산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늘도 수입량은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만큼의 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2-49> 마늘 수급 실태

단위: 천t

연도	수 요				공 급			
	계	소 비	수출	이월	계	생 산	수입	이월
'07	411	405	-	6	411	348	62	1
'08	426	426	-	-	426	375	45	6
'09	392	392	-	-	392	357	32	3
'10	354	354	-	-	354	272	82	-
'11	382	382	-	-	382	295	87	-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3) 양파 수급 실태

- 양파는 지난 5년간('07~'11년)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소비는 122.0% 수준이고 생산은 125.3% 수준으로 생산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정량의 수입으로 양파수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2-50> 양파 수급실태

연도	수 요				공 급			
	계	소 비	수출	이월	계	생 산	수입	이월
'07	1,271	1,271	-	-	1,271	1,213	38	20
'08	1,097	1,097	-	-	1,097	1,035	61	1
'09	1,398	1,398	-	-	1,398	1,372	26	-
'10	1,451	1,444	4	3	1,451	1,412	39	-
'11	1,552	1,551	1	-	1,552	1,520	32	-

단위: 천t

자료: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4) 참깨 수급 실태

- 참깨는 지난 5년간('07~'11년) 소비는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107.3%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생산은 81.9%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생산의 감소로 수입은 116.9%가 증가하여 자급도도 13.2%로 떨어졌음. 참깨의 1인당 소비량은 지난 5년간 큰 차이가 없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수입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표 2-51> 참깨 수급 실태

연도	수 요			공 급				1인당 연간 소비량	자급도
	계	소 비	차년이월	계	전년이월	생 산	수 입		
	천t			천t				kg	%
'07	90.6	84.1	6.5	90.6	9.6	15.5	65.5	1.8	18
'08	87.9	81.4	6.5	87.9	6.5	17.5	63.9	1.6	20
'09	90.5	84.9	5.6	90.5	6.5	12.7	71.3	1.7	14.9
'10	94.0	87.0	7.0	94.0	5.6	12.8	75.6	2.0	14.7
'11	96.3	90.2	6.1	96.6	7.0	12.7	76.6	1.78	13.2

자료: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2012

## 마) 조사료

### (1) 조사료의 의의와 특성

- 조사료는 반추가축의 소화기관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고 기능을 유지 시키므로 젖소나 한우는 반드시 급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농후사료와는 물리성 사료가치가 달라 서로 대체 할 수 없음. 또한 조사료 재배는 가축분뇨의 환원과 사료의 생산이란 순환형 축산의 기틀이 됨. 조사료는 사료작물과 목초로 구분되며 사료작물은 하계 사료작물과 동계 사료작물로 구분될 수 있음
- 사료용 옥수수는 대표적인 하계사료작물로 사료가치가 높고 사일리지 조제가 용이하며 품질이 우수함. 사일리지의 조제가 용이하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의미로 귀농 귀촌 직후의 경험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일리지 제조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 높은 건물수량과 양분수량을 올리기 위하여 파종시기와 수확기를 준수하여야 함
-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기호성과 사료가치는 사료용 옥수수보다 떨어지나 재배와 이용이 까다롭지 않으며 파종시기와 이용 시기에 여유가 있어 노동력 분배가 용이함. 출수형, 비출수형 등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품종이 있어 품종선택의 폭이 넓고 랩핑 사용이 가능함
- 귀리(연맥)는 맥류 중에서 목초에 가장 가까운 특성을 지닌 작물로 초장이 1.1~1.3m나 되며 이삭이 나와도 줄거리의 굳어짐이 느리고 잎이 많아 가축의 기호성이 우수함. 귀리는 주로 청예를 이용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근초, 사일리지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비닐랩에 의한 사일리지도 가능하며, 건초의 생산량은 ha당 4~9톤임
- 유채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2년생 초본식물로 초고는 0.8~1.4m이며 시원한 기후를 좋아 하지만 1월 최저 평균기온이 -5℃선이 재배한계이므로 추파재배가 알맞음. 춘파성이 높은 품종을 추파할 경우 월동이 문제되고 춘파할 경우 영양생장기간이 부족하여 수량이 추파보다 저하됨. 사료용 유채는 건물생산량 4~8톤/ha이며, 단백질함량도 건물 기준 10~25%로 청예사료용으로 매우 우수하고 다른 사료작물의 영양성분과 비교하더라도 사료가치에서 손색이 없음

<표 2-52> 청예 이용시 각 작물의 영양성분

작 물 명	수분	조 단백질	조 지방	가용성 무질소물	조 섬유	회분
청예 유채	85.8	2.9	0.9	4.8	4.2	1.6
청예 옥수수	81.2	1.5	0.5	9.5	5.3	1.4
청예 호밀	76.9	3.0	0.9	10.3	5.5	1.6
청예 대두	83.5	2.9	0.4	6.7	5.3	1.2

자료: 농촌진흥청  
단위: %

- 사료용 유채는 가소화 단백질 함량이 높아 가축이 섭취했을 때 소화가 용이하므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볏짚과 섞어 급여하면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표 2-53> 사료작물 가소화 단백질 함량 및 열량비율

작 물 명	가소화 단백질 함량 (건물 비중의 비율)	가소화 양분 총량에 의한 열량비율(건물 비중의 비율)
사료 유채	17~20	75%
사료 호밀	12~14	70
사료 연맥	12~14	70
알팔파	14~15	60
옥수수 사일리지	4~6	70
볏짚	1~2	40

자료: 네델란드 종자협회

## (2) 조사료의 생산 현황

- 하계 전작지 조사료의 총생산량은 2009년 2,325천 톤 중에서 옥수수가 1,690천 톤(72.7%)으로 가장 많으며 유채 275천 톤(11.8%) 수단그라스 269천 톤(11.6%)의 순위임
- 재배면적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보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은 순위는 옥수수(16톤/ha ), 수단그라스(15톤/ha ), 연맥(8톤/ha ) 의 순으로 연맥은 옥수수의 절반 수준임

<표 2-54> 하계 전작지 조사료 생산량 (2009)

구분	재배면적 (ha)	생산량 (천톤)	비율 (%)
계	189,993	2,325	100
옥수수	105,636	1,690	72.7
수단그라스	17,973	269	11.6
연맥(귀리)	11,085	89	3.8
유채	55,050	275	11.8
기타	249	2	0.1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등은 사료가치가 높고 가축 기호성이 높아 가축 급여효과가 뛰어나며 답리작 재배에 적합하여 벼 수확 후에 파종하여 이듬해 봄에 이용하고 있음. 현재는 내한성 품종이 많이 개발되어 한강 이남에서는 재배가 가능하며 청보리의 경우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보다 내한성이 강하여 좀 더 북쪽에서 안전재배가 가능함

### (3) 조사료의 수요와 공급

- 2009년 조사료 수요량은 5,203천 톤에 대한 수입량 765천 톤은 14.7%이며, 하계 전작지 생산량 2,325천 톤은 수요량 대비 45%임. 답리작으로 재배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의 조사료 및 볏짚을 이용함으로써 수요량의 80%를 약간 상회하는 조사료를 충당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청보리를 기준으로 국내산이 수입산 보다 절반 정도가 저렴하여 가격경쟁력이 있으므로 정부의 종자대 등의 지원에 힘입어 조사료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수입량은 점차 감소되고 있음
- 추후 조사료의 양적인 증산과 함께 짚보다 영양성분이 높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표 2-55> 조사료 수요 및 공급량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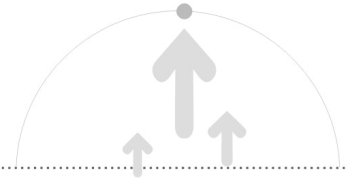
단위: 천톤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수입량	자급률(%)
5.203	3.090	2.325	765	45

주) 생산량은 하계 전작지 생산량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자료

3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발경지  
이용실태







### 3. 현장조사를 통해 본 밭경지 이용실태

#### 3.1 현장조사 개요

##### 3.1.1 현장조사 목적

- 전국 밭 농가의 공부상 밭 이용현황, 실제 밭 이용현황, 다른 지목의 밭 이용현황, 자경·임차·임대현황 등 농지소유와 이용 형태를 조사·분석하고 농가별 경영규모, 작부체계, 작물별 재배 면적, 밭작물 소득 등 영농현황을 조사·분석하며, 2011년과 2012년의 영농상황 및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밭 농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밭농업 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 밭 농가의 소득안정,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밭직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며, 밭 직불제도에 대한 밭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 3.1.2 조사대상의 선정

- 밭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논농사를 포함한 전체 농가의 대표성보다는 밭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와 지역 위주로 표본을 추출함
- 표본추출 방법
  - 조사 지역은 표본추출 단위를 1차 시·도, 2차 시·군, 3차 읍·면, 4차 마을로 하여 4단 단순 임의추출법에 의하여 선정하고 조사농가는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의 밭 재배 농가를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 시·도는 상대적으로 밭 면적이 적은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와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로 하였고 조사대상 시·군은 밭 경지면적이 5천ha이상 시·군 중에서 시도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읍·면은 밭 경지면적이 500ha이상 읍·면 중에서 시·군별로 1개읍면을 선정하였고 조사대상 마을은 조사대상 읍·면에서 비교적 밭 면적이 많은 2개 행정리를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 농가는 읍면별 16호로 총 128호를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조사현장 사정에 의하여 118호를 조사하였고 그중에서 통계분석이 어려운 2농가를 제외하고 116농가의 조사결과를 집계·분석하였음

○ 조사지역별 표본농가 선정 현황

<표 3-1> 조사지역 및 조사농가

단위: 호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시·군	여주	홍천	음성	서산	고창	해남	안동	밀양	8
읍면	가남	두촌	음성	부석	홍덕	황산	풍산	상동	8
농가									
-계획	16	16	16	16	16	16	16	16	128
-조사	10	16	16	17	18	15	16	10	118

※ 세부내역은 부표 4. 밭 농업 실태조사 결과 참조

### 3.2 밭농가 조사 결과 및 분석

#### 3.2.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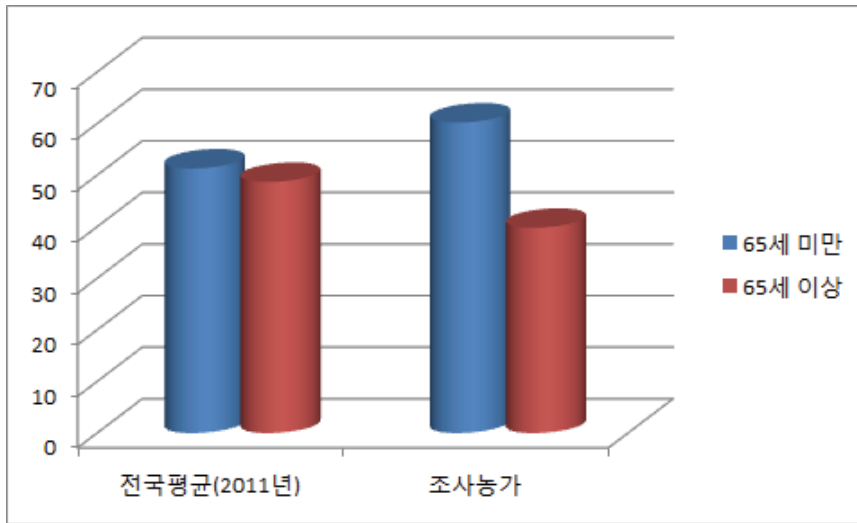
##### 1) 경영주 연령

○ 조사농가의 연령은 65세이상 농가가 39.8%이고 60세이하 농가가 40.7%인데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농가인구가 33.8%, 60세 이하 농가인구가 55.8%인 것을 감안하면 조사농가의 연령이 보다 고령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젊은 농가도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 지역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연령이 가장 높고 전북지역의 조사농가의 연령이 제일 낮았음

<표 3-2> 경영주 연령

단위: 명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계	%
49세 이하	-	-	1	-	8	5	-	-	14	11.9
50-59	6	3	7	2	9	4	3	-	34	28.8
60-64	2	5	5	4	1	1	4	1	23	19.5
65세 이상	2	8	3	11	-	5	9	9	47	39.8
계	10	16	16	17	18	15	16	10	118	100.0



(그림 3-1) 경영주의 연령 분포

## 2) 경지규모

- 조사농가의 밭 경지면적을 밭 지목 면적기준으로 보면 평균 호당 밭 경지면적은 1.92ha으로 2011년말 전국 농가호당 밭 경지면적 0.64ha에 비하면 약 2.7배가 되는 규모로 조사되었고 또한 이와 같은 조사농가의 밭 영농규모는 전국 농가호당 경지면적 1.45ha의 1.3배가 되는 규모임. 지역적으로는 전북지역이 4.77ha로 가장 밭 경지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와 같이 조사농가의 경지규모가 큰 것은 밭 농업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지역을 밭 면적이 5천ha 이상 되는 시·군과 밭 면적이 500ha 이상 되는 읍면에서 표본농가를 선정하였고, 밭 주산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밭 전업농가를 포함하여 표본농가를 선정하였기 때문임
- 조사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밭 이용 면적의 평균 필지수는 3.2 필지인데, 이 중 지목이 밭인 필지수는 2.6 필지이고 타 지목이 0.6 필지임. 지목별 밭 이용면적을 살펴보면 지목이 밭인 면적이 87.3%, 지목이 논인 면적이 3.3%,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 9.0%이고 나머지 0.4%는 대지, 묘지, 도로 등임

<표 3-3> 지목별 밭 이용면적

단위: m<sup>2</sup>

도 별	밭		논		임 야		기 타		계	
	필 지	면적	필 지	면적	필 지	면적	필 지	면적	필 지	면적
경기	22	185,576	3	35,309	1	4,760	1	355	27	226,000
강원	38	137,307	4	3,687	1	1,983	4	4,443	47	147,420
충북	48	304,694	4	13,227	-	-	-	-	52	317,921
충남	70	123,061	10	13,255	6	11,198	5	1,261	91	148,775
전북	26	627,807	1	2,645	11	124,870	1	1,650	39	756,972
전남	33	299,590	-	-	12	48,575	-	-	45	348,165
경북	54	217,285	1	3,623	3	7,044	1	559	59	228,511
경남	13	29,126	1	994	-	-	-	-	14	30,120
계 (%)	304	1,924,446 (87.3)	24	72,740 (3.3)	34	198,430 (9.0)	12	8,268 (0.4)	374	2,203,884 (100.0)

### 3.2.2 밭 이용 실태

#### 1) 공부상 밭 이용 현황

- 공부상 밭의 면적은 1,924천m<sup>2</sup>인데 그 중 98.8%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1.2%는 휴경, 임대, 임야의 미개간 면적으로 밭 농가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밭을 휴경하는 것은 대부분 밭작물의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휴경을 하는 것이므로 휴경기간이 지나면 다시 밭으로 이용하는 면적임

<표 3-4> 공부 상 밭의 이용면적

단위: m<sup>2</sup>

도별	필지 수	공부 면적 (a)	이용면적 (b)	미 이용면적(a-b)			
				휴경 면적	폐경 면적	기타	계
경기도	22	185,576	185,411	165	-	-	165
강원도	38	137,307	123,931	-	-	13,376	13,376
충청북도	48	304,694	301,388	-	-	3,306	3,306
충청남도	70	123,061	120,536	1,549	-	976	2,525
전라북도	26	627,807	627,807	-	-	-	-
전라남도	33	299,590	296,311	3,279	-	-	3,279
경상북도	54	217,285	217,219	66	-	-	66
경상남도	13	29,126	29,126	-	-	-	-
계	304	1,924,446 (100.0)	1,901,729 (98.8)	5,059	-	17,658	22,717 (0.2)

주: 기타는 임야 미개간면적임.

## 2) 타 지목의 밭 이용 현황

- 밭 이외 지목을 밭으로 이용하는 면적은 70필지에 279천m<sup>2</sup>로 그 중에서 지목이 임야인 경우가 71.0%로 가장 많은데 이것은 임야가 밭으로 이용하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고 지목이 논인 경우가 26.0%로 두 번째로 많은데 이와 같이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것은 최근 쌀 가격의 하락 등으로 논농사의 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지가 2.3%, 도로 및 묘지가 0.7%임. 지역적으로는 전북지역이 46.2%로 가장 많이 타 지목을 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타 지목의 밭 이용면적

단위: m<sup>2</sup>

도별	논		임야		대지		기타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	3	35,309	1	4,760	1	355			5	40,424
강원	4	3,687	1	1,983	3	4,192	1	251	9	10,113
충북	4	13,227	-		-				4	13,227
충남	10	13,255	6	11,198	5	1,261			21	25,714
전북	1	2,645	11	124,870			1	1,650	13	129,165
전남	-	-	12	48,575					12	48,575
경북	1	3,623	3	7,044	1	559			5	11,226
경남	1	994	-						1	994
합계	24	72,740	34	198,430	10	6,367	2	1,901	70	279,438

주: 강원도의 기타는 도로, 전북의 기타는 묘지임

### 3) 밭의 타용도 이용현황

- 지목 상 밭을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논과 과수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과수원을 93.0%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복숭아와 사과를 재배하는데 밭을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6> 지목상 밭의 타 용도 이용면적

단위: m<sup>2</sup>

도별	논		임야		대지		과수원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	1	579	-	-	-	-	2	46,063	3	46,642
강원	1	1,048	-	-	-	-	-	-	1	1,048
충북	-	-	-	-	-	-	4	24,135	4	24,135
충남	1	1,180	-	-	-	-	-	-	1	1,180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2	2,451	-	-	-	-	-	-	2	2,451
경남	-	-	-	-	-	-	-	-	-	-
합계	5	5,258	-	-	-	-	6	70,198	11	75,456

### 3.2.3 밭농업 경영형태

#### 1) 소유-임대차 현황

##### 가) 밭농가의 소유-임대차 현황

-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지면적의 경영형태는 자경이 60.3%, 임차가 38.9%, 임대차가 0.8%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충청북도가 임차농지 비율이 61.0%로 가장 높는데 이것은 조사지역이 수도권에 가깝고 도로의 발달로 접근이 용이하여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됨으로써 임대농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임차농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인데 이것은 조사지역이 상대적으로 밭 면적이 적고 노동력이 부족하며 단감 등 과수재배가 많아 임차농지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면적은 경영주가 고령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밭 농지의 임대가 발생된 것임

<표 3-7> 자경, 임차, 임대면적

단위: m<sup>2</sup>

도 별	자 경		임 차		임 대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도	18	152,739	9	73,261	-	-	27	226,000
강원도	37	93,512	8	40,532	2	13,376	47	147,420
충청북도	40	120,569	11	194,046	1	3,306	52	317,921
충청남도	70	109,557	18	38,242	3	976	91	148,775
전라북도	23	514,182	16	242,790	-	-	39	756,972
전라남도	23	157,375	22	190,790	-	-	45	348,165
경상북도	30	153,751	29	74,760	-	-	59	228,511
경상남도	12	27,476	2	2,644	-	-	14	30,120
합 계	253	1,329,161	115	857,065	6	17,658	374	2,203,884

## 나) 지목별 자경-임차 현황

### (1) 지목별 자경 현황

-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경면적 중에는 지목이 밭인 경우가 91.3%, 논이 4.4%이고 밭으로의 이용이 용이한 임야는 3.8%이며 기타가 0.5%임.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라남도도 임야를 밭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8> 지목별 자경면적

단위: m<sup>2</sup>

도별	밭		논		임야		기타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 (%)	15	124,211 (81.3)	2	28,173 (18.4)	-	-	1	355 (0.2)	18	152,739 (100.0)
강원 (%)	30	83,955 (89.8)	3	3,647 (3.9)	1	1,983 (2.1)	3	3,927 (4.2)	37	93,512 (100.0)
충북 (%)	37	113,624 (94.2)	3	6,946 (5.8)	-	-	-	-	40	120,570 (100.0)
충남 (%)	50	84,501 (77.1)	9	12,597 (11.5)	6	11,198 (10.2)	5	1,261 (1.2)	70	109,557 (100.0)
전북 (%)	17	490,894 (95.5)	1	2,645 (0.5)	4	18,993 (3.7)	1	1,650 (0.3)	23	514,182 (100.0)
전남 (%)	16	139,206 (88.5)	-	-	7	18,169 (11.5)	-	-	23	157,375 (100.0)
경북 (%)	29	150,128 (97.6)	1	3,623 (2.4)	-	-	-	-	30	153,751 (100.0)
경남 (%)	11	26,482 (96.4)	1	994 (3.6)	-	-	-	-	12	27,476 (100.0)
계 (%)	205	1,213,001 (91.3)	20	58,625 (4.4)	18	50,343 (3.8)	10	7,193 (0.5)	25	1,329,162 (100.0)

### (2) 지목별 임차 현황

-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차면적 중에는 지목이 밭인 경우가 80.9%, 논이 1.6%이고 밭으로의 이용이 용이한 임야는 자경의 경우와는 달리 17.3%로 높으며 기타가 0.2%임. 지역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임야를 밭으로 임차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은데, 이것은 조사지역의 농가가 밭 전업농으로 젊고 영농



규모가 크며 조사지역이 야산개발 지역으로 임야가 많고, 발농업이 발달하여 자본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소유욕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3-9> 지목별 임차면적

단위: m<sup>2</sup>

도별	밭		논		임야		기타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경기 (%)	7	61,365 (83.8)	1	7,136 (9.7)	1	4,760 (6.5)			9	73,261 (100.0)
강원 (%)	6	39,976 (98.6)	1	40 (0.1)	-	-	1	516 (1.3)	8	40,532 (100.0)
충북 (%)	10	187,765 (96.8)	1	6,281 (3.2)	-	-	-	-	11	194,046 (100.0)
충남 (%)	17	37,584 (98.3)	1	658 (1.7)	-	-	-	-	18	38,242 (100.0)
전북 (%)	9	136,913 (56.4)	-	-	7	105,877 (43.6)	-	-	16	242,790 (100.0)
전남 (%)	17	160,384 (84.1)	-	-	5	30,406 (15.9)	-	-	22	190,790 (100.0)
경북 (%)	25	67,157 (89.8)	-	-	3	7,044 (9.4)	1	559 (0.7)	29	74,760 (100.0)
경남 (%)	2	2,644 (100.0)	-	-	-	-	-	-	2	2,644 (100.0)
계 (%)	93	693,788 (80.9)	4	14,115 (1.6)	16	148,087 (17.3)	2	1,075 (0.1)	115	857,065 (100.0)

## 2) 경작규모

### 가) 지목상 밭에 경작하는 밭농업 규모

- 지목이 밭인 곳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밭농업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0㎡ 이하는 29.2%를 차지하고, 5,000~20,000㎡는 38.5%, 20,001㎡ 이상은 32.3%를 차지하였음

### 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밭농업 규모

-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농가가 실제 밭농업을 경작하는 규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5,000㎡ 이하는 36.3%를 차지하고, 5,000~20,000㎡는 35.4%, 20,001㎡ 이상은 28.3%를 차지하였음
  - 지목이 밭인 곳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비교하여 보면, 지목에 관계없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비율이 5,000㎡ 이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 밭농업을 하는 농가 중에 밭작물 재배를 위하여 밭 이외의 지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3)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 조사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밭작물은 총 42개 품목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10천㎡(3,025평)이상 재배되고 있는 품목은 27개 품목으로 총 재배면적 2,836천㎡ 중에서 98.3%를 차지하고 있음. 조사농가의 총 재배면적 중에서 콩이 19.2%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고 무 11.7%, 배추 10.0%, 고추 9.0%, 인삼 6.4%, 옥수수 5.8%, 수박 4.9%, 마늘 4.2% 순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0> 밭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면적: m<sup>2</sup>

구분	콩	무	배추	고추	인삼	옥수수	수박	마늘
재배 면적	544,602	331,299	284,822	255,569	183,139	165,962	140,484	119,009
비율 (%)	19.2	11.7	10.0	9.0	6.4	5.8	4.9	4.2

<표 3-11> 작물별 재배면적

면적: m<sup>2</sup>

밭 직불제 대상 작물		밭 직불제 대상외 작물	
콩	544,602	무	331,299
고추	255,569	배추	284,822
옥수수	165,962	인삼	183,139
밀	83,895	수박	140,484
수단	69,405	마늘	119,009
보리	51,238	고구마	77,853
참깨	49,838	도라지	55,155
땅콩	39,235	담배	49,586
수수	6,311	복숭아	45,390
조	991	묘목	42,970
팥	164	들깨	42,449
<b>소계</b>	<b>1,267,210 (44.7)</b>	감자	29,116
		가지	24,862
		배	16,528
		대파	16,523
		생강	16,412
		사과	15,871
		오이	14,960
		감	14,250
		양파	9,587
		쪽파	7,616
		양배추	6,612
		은행	6,611
		논벼	5,258
		메론	3,305
		호박	2,920
		두릅	2,655
		잣	1,669
		관상수	812
		대추	661
		황기	361
		<b>소계</b>	<b>1,568,745 (55.3)</b>
<b>합계</b>		<b>합계</b>	<b>2,835,955 (100.0)</b>

주: 부표 3. 도별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참조

- 2011년에 하우스 시설재배가 아닌 비가림 시설에 의한 고추재배 면적은 조사농가의 총 고추재배면적 339,558m<sup>2</sup>의 5.4%인 18,383 m<sup>2</sup>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4) 밭농업 소득

- 조사농가의 밭 농업소득은 밭 농가의 작부체계와 작물별 재배면적 및 작물별 농가판매가격에 의거 추정하였는데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은 지역별로, 농가별로 ① 판매시기 및 방법에 따라 농산물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고, ② 자연재해 등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있으며, ③ 밭작물의 자가소비량과 판매량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농가조사 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농촌진흥청 『2011년도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의 단위면적당 소득 자료를 이용하였음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도출한 조사농가의 호당 평균 밭 농업소득은 42,469천원이며 ha당 평균 밭 농업소득은 16,99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충청북도가 28,014천원으로 가장 소득이 높는데 이것은 담배와 인삼 같은 고소득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임. (부표 3. 도별, 작물별 밭 농업소득 참조)

<표 3-12> 밭 농업소득

도별	밭 면적 (ha)	재배면적 (m <sup>2</sup> )	경지이용률 (%)	농업소득		
				ha당 소득 (천원)	합계 (천원)	농가호당 소득(천원)
경기	226,000	257,718	114.0	25,237	670,827	67,083
강원	147,420	156,224	106.0	12,734	291,369	18,210
충북	317,921	331,986	104.4	28,014	1,029,569	64,348
충남	148,775	235,477	158.3	15,908	388,969	22,880
전북	756,972	1,086,428	143.5	13,988	1,685,870	105,367
전남	348,165	402,482	115.6	13,925	582,349	38,823
경북	228,511	245,351	107.4	10,862	279,350	17,459
경남	30,120	36,243	120.3	15,272	55,807	5,581
계	2,203,884	2,751,909	124.9	16,992	4,984,110	42,469

## 5) 2011/2012년 영농형태 변화

### 가) 소유-임차 구조

- 2011년 조사농가의 밭 영농형태는 본인 소유의 밭 60.3%와 타인의 밭 38.9%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밭 중 0.8%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었음. 이러한 경영형태는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 타인의 밭을 임차하고 있는 농가는 주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밭을 임대한 농가는 주로 노동력 부족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 밭 이용면적

- 밭 면적은 2012년에 9,917m<sup>2</sup>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 조사농가의 전체 밭 이용면적의 0.27%에 불과한 수준으로 타인의 밭을 임차하여 밭 면적을 확대한 것이고 대부분의 농가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밭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있음
- 2011년에는 태풍피해로 충남, 전북, 전남지역의 밭작물 수확량이 많게는 39%까지 감소한 작물이 있어 전체적인 실 수확 면적이 감소하였고 콩은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음. 그러나 2012년에는 자연재해를 받지 않아 실 수확면적이 36,571m<sup>2</su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 밭 농가의 재배작물을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재배한 작물과 2013년 재배의향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재배작물은 총 42개 품목이고 2012년 재배작물은 총 41개 품목인데 2011년 대비 2개품목을 신규로 재배하고 3개품목을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도 총 41개 품목을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2년 대비 1개 품목을 신규로 재배하고 1개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밭 농가의 재배면적을 201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재배한 면적과 2013년 재배의향 면적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재배면적은 총 2,835,955m<sup>2</sup>이고 2012년 재배면적은 총 2,865,730m<sup>2</sup>로 2011년 대비 26,775m<sup>2</sup>, 0.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총 2,828,876m<sup>2</sup>로 2012년 대비 36,854m<sup>2</sup>, 1.29%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와 같이 밭 농가들의 재배작물과 재배면적의 변동이 적은 것은 밭 농가들이 밭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과 적합한 토양, 농산물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재배작물을 크게 바꾸지 않고 면적도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부표 4. 시도별 2011년/2012년/2013년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참조)

<표 3-13> 2011/2012/2013년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단위: m<sup>2</sup>

순 위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콩	544,602	콩	548,213	콩	571,180
2	무	331,299	무	380,060	무	338,183
3	배 추	284,822	고 추	244,575	배 추	295,124
4	고 추	255,569	배 추	243,331	인 삼	216,418
5	인 삼	183,139	인 삼	221,232	고 추	206,644
6	옥수수	165,962	옥수수	183,218	옥수수	178,305
7	수 박	140,484	수 박	140,484	수 박	140,484
8	마 늘	119,009	마 늘	128,620	마 늘	132,284
9	밀	83,895	참 깨	80,333	참 깨	76,503
10	고구마	77,853	밀	69,022	밀	69,022
11	수 단	69,405	고구마	59,767	고구마	68,092
12	도라지	55,155	도라지	55,155	도라지	56,155
13	보 리	51,238	감 자	52,732	보 리	51,238
14	참 깨	49,838	보 리	51,238	담 배	49,586
15	담 배	49,586	담 배	49,586	복숭아	48,695
16	복숭아	45,390	복숭아	45,390	묘 목	42,970
17	묘 목	42,970	묘 목	42,970	수 단	36,347
18	들 깨	42,449	들 깨	35,368	들 깨	30,608
19	땅 콩	39,235	수 단	31,863	감 자	30,233
20	감 자	29,116	수 수	29,757	수 수	29,757
21	가 지	24,862	양 과	27,770	양 과	27,770
22	배	16,528	땅 콩	25,539	땅 콩	24,729
23	대 과	16,523	생 강	22,669	생 강	21,474
24	생 강	16,412	배	16,528	사 과	15,871
25	사 과	15,871	사 과	15,871	감	14,250
26	오 이	14,960	오 이	14,960	오 이	13,520
27	감	14,250	감	14,250	메 론	9,917
28	양 과	9,587	은 행	6,611	은 행	6,611
29	쪽 과	7,616	대 과	5,945	대 과	5,945
30	양배추	6,612	당 근	5,121	당 근	5,121
31	은 행	6,611	메 론	3,305	두 립	2,655
32	수 수	6,311	두 립	2,655	울 무	2,644
33	논 벼	5,258	울 무	2,644	쪽 과	2,495
34	메 론	3,305	쪽 과	2,495	논 벼	2,451
35	호 박	2,920	논 벼	2,451	호 박	2,410
36	두 립	2,655	호 박	1,650	단호박	992
37	жат	1,669	조	991	조	991
38	조	991	대 추	661	대 추	661
39	관상수	812	약 초	361	약 초	361
40	대 추	661	고사리	175	팔	164
41	약 초	361	팔	164	고사리	16
42	팔	164	양배추	-	양배추	
43	당근	-	жат	-	жат	
44	단호박	-	단호박	-	배	
45	울무	-	관상수	-	관상수	
계		2,835,955		2,865,730		2,828,876

#### 라) 재배품목 변경 및 사유

- 2011년에는 재배하지 않았지만 2012년에 재배한 작물은 2개 품목이지만 이것은 조사농가별로 같은 작물이 순환되어 재배되는 현상이므로 재배품목은 유의성이 없으며 재배품목을 다른 작물로 전환한 사유는 밭작물의 연작피해 방지, 소득확보이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밭작물의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돌려짓기 형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따라 작물별 재배면적도 변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에 감소한 작물의 재배면적은 9,093㎡이고 증가한 작물의 재배면적은 7,765㎡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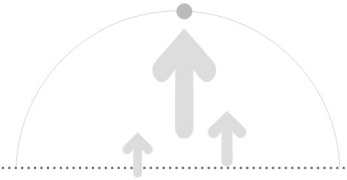
#### 6) 향후 밭농업 영농의향

- 조사농가들 중 1농가를 제외하고 앞으로 계속 밭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것이라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밭 농업을 주된 영농형태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밭 농업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밭 농업을 지속한다고 판단됨



# 4

## 발농업 직불제 관련 의향과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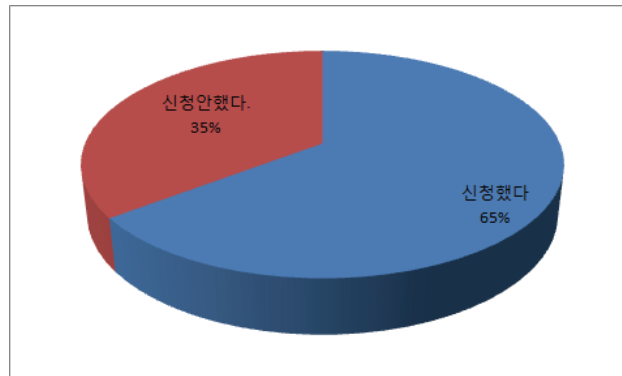


## 4. 밭농업 직불제 관련 의향과 영향요인

### 4.1 밭농업 직불제 신청 의향

#### 4.1.1 밭농업 직불제 신청 여부

- 2012년 밭 직불사업을 신청한 조사농가는 76농가로 총 조사농가(116호)의 64.4%이고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35.6%를 차지함
  - 이같은 신청비율(약65%)은 농식품부에서 지원대상으로 판단했던 농가 물량의 약 45%만이 신청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농식품부 추정 물량 중에서 1,000㎡ 미만의 지원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와 돌려짓기 등에 의한 필지별 밭 이용면적이 중복 계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신청률과도 유사한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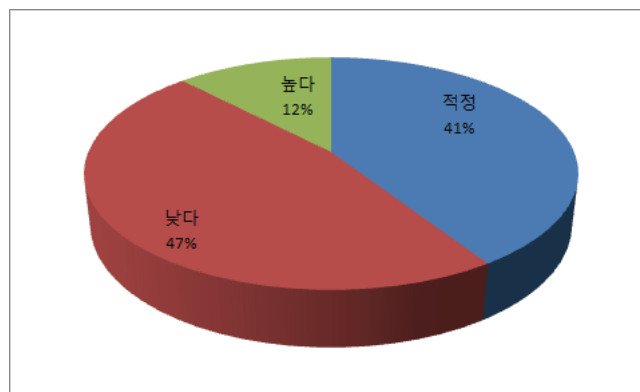
(그림 4-1) 밭 직불제 신청여부

#### 4.1.2 밭농업 직불제 미신청 사유

-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① 사업대상이 아니다(공부상 밭이 아님, 지원대상 품목이 아님)(39.0%), ② 직불금액이 적다(12.2%), ③ 밭 면적이 적다(12.2%), ④ 신청절차가 복잡하다(9.8%), ⑤ 기타(26.8%)로 나타나 밭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된 사유는 지목과 면적 및 재배품목과 같은 사업대상의 제한이라고 판단됨
  - 그렇지만, 직불금액이 적다는 응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원 하한 면적을 약간 넘긴 농가 중에는 하루 품삯도 되지 않는 금액을 신청하고,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밭작물 재배면적이 적은 영세농가를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4.2 밭농업 직불제 지원상한에 대한 의견

- 2012년 밭 직불사업의 농가 지급면적 상한(4ha)에 대하여 조사 농가의 40.8%는 적정하다고 한 반면에, 46.9%는 낮다고 했고, 12.2%는 높다고 함
  - 상한선이 낮아서 지원대상 면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적정하다는 응답도 많은 편이어서, 지원 대상 면적 상한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밭 직불제 시행 목적에 따라서 단지 지급면적 상한 자체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그림 4-2) 밭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4.3 밭 직불사업의 추가지원 희망 품목

- 2012년 밭 직불사업의 지원 대상품목은 겉보리 등 19개 품목이지만 조사농가들은 지역별 주산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파, 무, 배추, 마늘, 생강, 고구마, 수박 등과 지역의 소득작물인 감자, 들깨, 도라지, 양배추, 단호박, 인삼 등의 품목을 포함한 밭작물 전체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농가소득 보전, ② 밭작물 연작피해 방지, ③ 노동력 부족, ④ 지역 특산물 육성, ⑤ 생산비 절감, ⑥ 주산단지 육성 등으로 나타났다

#### 4.4 임야를 밭으로 지목전환시 우려하는 점

○ 2011년 임야를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조사농가(116호 중 38호, 32.8%)는 임야를 밭으로 전환 시 ①용도변경 불편(52.6%) ②세금과다(13.2%) ③매도시 제약(7.9%) ④규제과다(2.6%) ⑤기타(23.7%)로 나타나 농가에서 임야를 밭으로 지목변환을 하지 않은 주된 사유가 용도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임야가 농지에 비해 용도변경이나 취득자격에 제약이 적고,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 등의 걸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심층면접 과정에서 밝혀졌음
- 이와 같이 임야는 ① 밭에 비해 타 용도로의 전용이 용이하고, ② 밭 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며, ③ 누구에게나 매도가 가능하여 토지 거래가 용이하고, ④ 형질 변경 등 토지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⑤ 임야에서의 밭 작물재배는 대부분 대규모 개간 등에 의한 기업농의 형태로 배추, 무, 수박 등의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등 임야는 밭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 임야에 재배되는 밭작물이 많다고 해서 임야를 밭직불제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식적인 지목변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단지 밭 농업을 한다는 이유로 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은 농업인들로 하여금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아도 되고, 이익이 되는 과실만 취하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므로 이러한 방식의 제도개선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대신에 밭으로의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여 직불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5 밭농업직불제 신청 영향요인

##### 4.5.1 경영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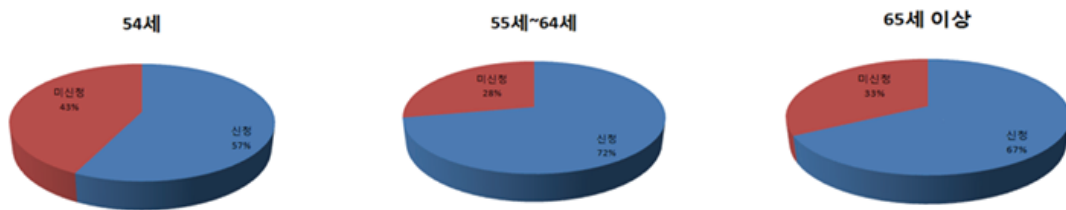
○ 경영주 연령별 밭직불제 신청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신청한 비율이 미신청 비율을 상회하였으나, 연령대별로 분포에 차이를 보임

- 신청 비율이 높은 연령층은 중간 연령층(55-64세), 고연령층(65세 이상), 저연령층(54세 이하) 순이었음
-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신청을 원하더라도 밭 면적이 적어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하한 면적을 약간 상회하여 신청에 따른 실익이 적고, 저연령층의 경우 경영규모가 커서 밭직불금에 연연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반해 중간 연령층의 경우 직불금이 경영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미신청 비율은 저연령층, 고연령층, 중간연령층 순으로 높았음
  - 저연령층이 직불금 수령에 따른 실익에 대해 부정적이고, 중간연령층이 가장 긍정적인 것은 미신청 비율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음

<표 4-1> 경영주 연령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구 분	54세 이하		55-64세		65세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신청	12	57.1	29	72.5	30	66.7	71	67.0
미신청	9	42.9	11	27.5	15	33.3	35	33.0
계	21	100	40	100	45	100	106	1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3) 경영주 연령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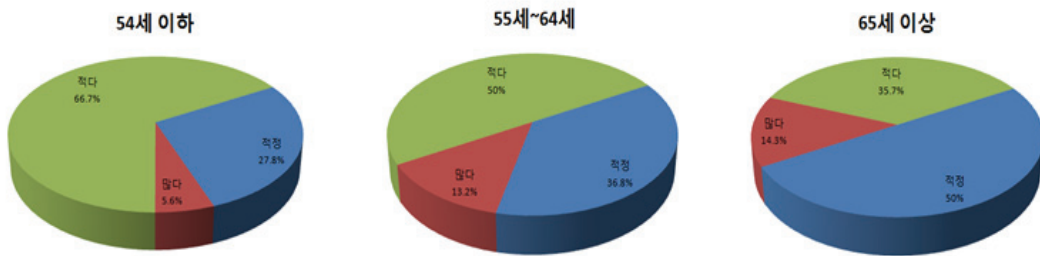
- 경영주 연령별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4ha)에 대한 의견을 보면, 연령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적정하다’는 응답은 고연령층에서 많고, ‘적다’는 의견은 저연령층과 중간연령층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많다’는 의견은 중간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높았음

- 앞의 직불제 신청여부와 비교하여 보면, 저연령층은 지급면적 상한이 작다고 하면서 실제 신청 비율은 낮고, 중간연령층은 상한이 작다고 하면서 실제 신청 비율은 높아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중간연령층이 받 직불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거나 지지자인 것으로 판단됨

<표 4-2> 경영주 연령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구 분	54세 이하		55-64세		65세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적정	5	27.8	14	36.8	21	50.0	40	40.8
많다	1	5.6	5	13.2	6	14.3	12	12.2
적다	12	66.7	19	50.0	15	35.7	46	46.9
계	18	100	38	100	42	100	98	1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4) 경영주 연령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이러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밭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당 밭 직불금 지원면적의 상한을 늘리기보다는 일정면적 이하의 면적에 대한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5.2 경영규모

##### 1) 공부상 밭의 밭농업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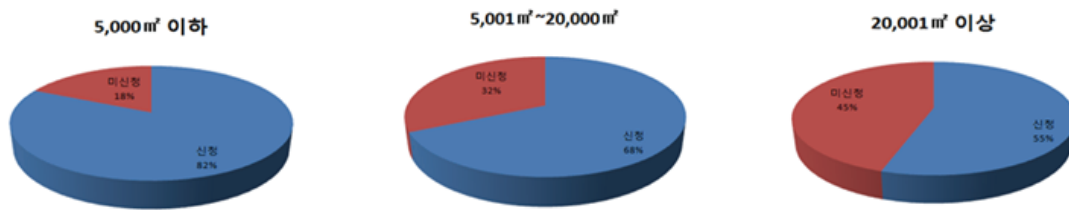
- 밭직불금 지원 기준인 공부상 밭을 이용하여 밭농업을 하는 면적별로 밭직불제 신청여부를 분석한 결과, 규모가 가장 작은(5,000㎡ 이하) 집단에 속한 농가 중에서 신청비율이 높고, 규모가 가장 큰(20,001㎡ 이상) 집단에 속한 농가 중에서 신청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이는 밭면적 0.5ha 이내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도 비록 그 금액이 적을지라도 신청농가들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됨
- 반면에 밭면적이 커질수록 오히려 신청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밭직불금 지원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오히려 적게 체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3>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기준) 밭직불제 신청여부

구 분	5,000㎡ 이하		5,001~20,000㎡		20,001㎡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신청	23	82.1	25	67.6	17	54.8	65	67.7
미신청	5	17.9	12	32.4	14	45.2	31	32.3
계	28	100.0	37	100.0	31	100.0	96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5)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밭직불제 신청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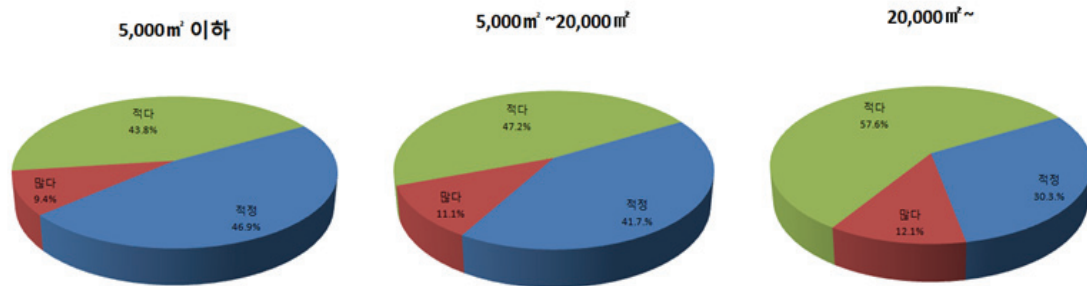
-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은 밭 규모가 작을수록 현 상한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고, 밭 규모가 클수록 상한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의 지원제도 하에서는 밭면적이 적은 농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밭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ha당 직불금 지원액을 크게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지급면적 상한을 올리더라도 현재 신청하지 않은 농가 중에 직불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4-4>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기준)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구 분	5,000㎡이하		5,001㎡~20,000㎡		20,001㎡~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적정	15	46.9	15	41.7	10	30.3	40	39.6
많다	3	9.4	4	11.1	4	12.1	11	10.9
적다	14	43.8	17	47.2	19	57.6	50	49.5
계	32	100	36	100	33	100	101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6)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2) 실제 경작하는 밭농업 면적

○ 지목과 관계없이 밭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업 규모별 밭농업직불제 신청 여부를 살펴보면 <표 4-5>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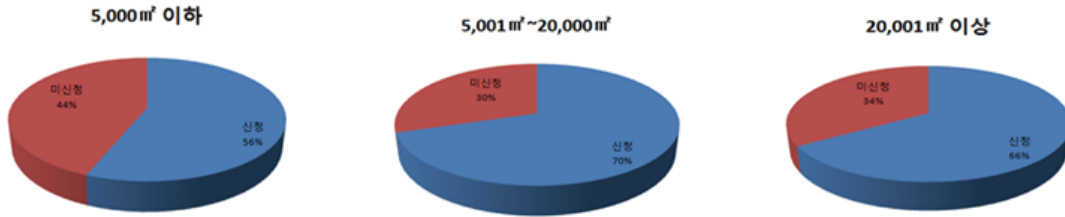
- 지목이 밭인 농지에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앞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밭농업 규모가 중간인 집단에서 신청 비율이 높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을 공부상 밭에 한정하지 않으면 신청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암시함

· 소규모 농가의 신청비율이 공부상 밭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낮은 것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하한 부근의 밭면적이어서 신청에 따른 실익이 없는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표 4-5>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을 기준) 밭직불제 신청여부

구 분	5,000㎡ 이하		5,001~20,000㎡		20,001㎡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신청	23	56.1	28	70.0	21	65.6	72	63.7
미신청	18	43.9	12	30.0	11	34.4	41	36.3
계	41	100.0	40	100.0	33	100.0	113	1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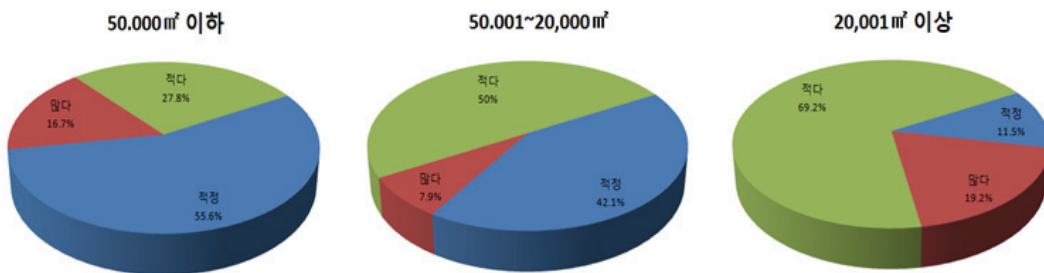
(그림 4-7)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밭직불제 신청여부

- 지목과 상관없이 밭농업 규모에 따른 밭직불금 지원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면적이 적을수록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고, 면적이 클수록 ‘적다’는 응답이 많아서 지목이 밭인 경우를 기준으로 밭농업 면적을 분류한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표 4-6>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을 기준)에 따른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구 분	5,000㎡ 이하		5,001~20,000㎡		20,001㎡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적정	20	55.6	16	42.1	3	11.5	39	39.0
많다	6	16.7	3	7.9	5	19.2	14	14.0
적다	10	27.8	19	50.0	18	69.2	47	47.0
계	36	100.0	38	100.0	26	100.0	100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8)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4.5.3 농지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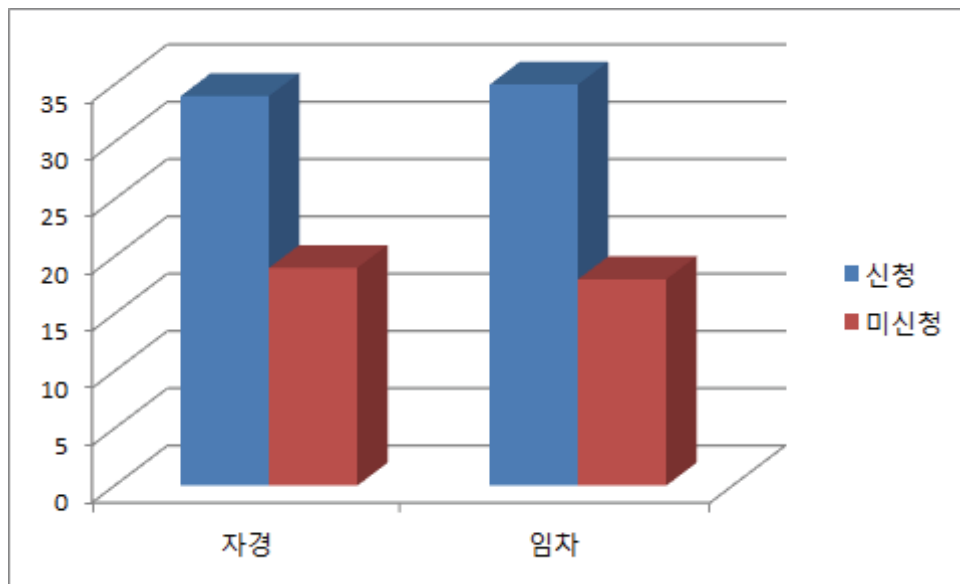
#### 1) 농지소유형태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 농지소유 형태별 밭농업직불제 신청여부는 신청이 65% 내외이고, 미신청이 35% 내외로 비율구성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주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직불제 신청이 영향을 받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임차농가의 경우에도 부분임차가 많아서 4ha 이내의 면적을 신청하는 데에는 경작하는 밭이 자작지냐 임차지냐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앞의 분석에서 밭 경작면적이 많으면 밭직불제 신청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밭 경작면적이 큰 농가 중에서 임차농가 비율이 높음에도 임차와 자경간에 밭직불제 신청여부에 차이가 없는 거라면 자경/임차 여부가 밭직불제 신청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밭 경작면적이 2ha 이상과 같이 크면 밭 직불제 신청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작면적에 임차면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밭 자작지를 2ha 이하로 가지고 있는 농가와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 밖의 가능성으로는 농지임대자가 밭직불제 신청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밝힐 필요가 있음

<표 4-7> 농지소유형태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구 분	자경		임차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신청	34	64.2	35	66.0	69	65.1
미신청	19	35.8	18	34.0	37	34.9
계	53	100	53	100	106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9) 농지소유형태별 밭직불제 신청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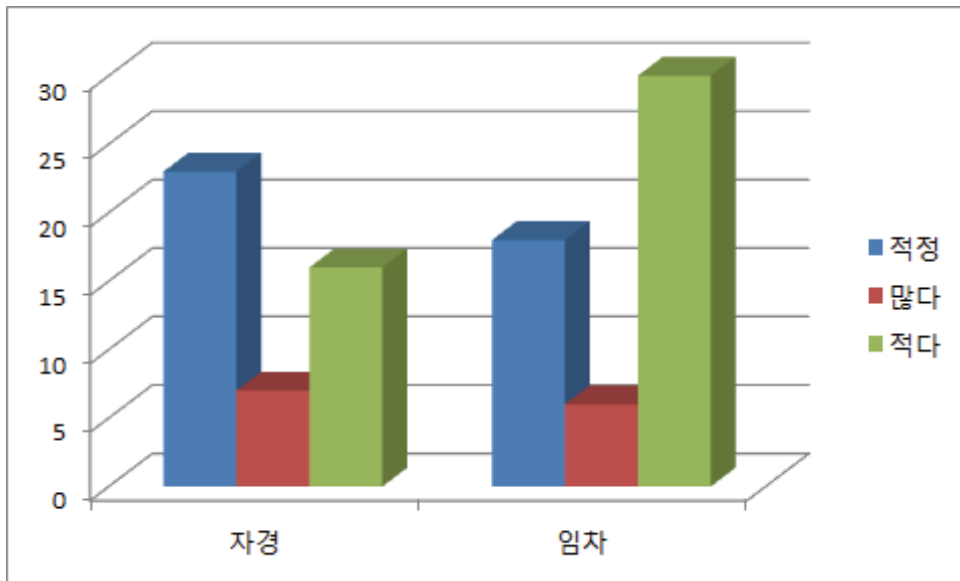
## 2) 농지소유형태별 밭직불제 지원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농지소유 형태가 자경이나, 임차냐에 따라 밭직불제 지원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경인 경우, 지급면적 상한 4ha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고, 임차농가의 경우 적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임
  - 이는 앞의 밭 경작규모별 응답 결과 분석과 비교해 볼 때, 임차농가의 경우 밭경작 규모가 큰 농가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고, 자경농가의 경우 밭경작 규모가 작은 농가와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8> 농지소유형태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구 분	자경		임차		계	
	빈도	%	빈도	%	빈도	%
적정	23	50.0	18	33.3	41	41
많다	7	15.2	6	11.1	13	13
적다	16	34.8	30	55.6	46	46
계	46	100.0	54	100.0	100	10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10) 농지소유형태별 지급면적 상한에 대한 의견

### 3) 경영주 특성별 농지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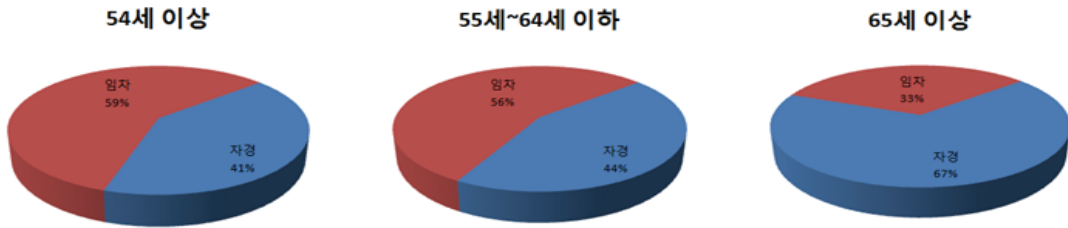
#### 가) 경영주 연령별 자경/임차 현황

- 경영주 연령에 따라서 자경과 임차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경영주 연령층에 따라 자경/임차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임차 비율이 높고, 자경 비율이 낮음
  - 반면에,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경 비율이 높고, 임차 비율이 낮음
  - 이는 젊은 경영자일수록 임차를 통해서라도 경영규모를 늘리기 원하기 때문이고, 은퇴시기에 가까워올수록 경영규모 확대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4-9> 경영주 연령별 자경/임차 현황

구 분	54세 이하		55-64세		65세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경	9	40.9	17	43.6	31	67.4	57.0	53.3
임차	13	59.1	22	56.4	15	32.6	50.0	46.7
계	22	100.0	39	100.0	46	100.0	107.0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11) 경영주 연령별 자경/임차 현황

나) 공부상 밭 규모별 자경/임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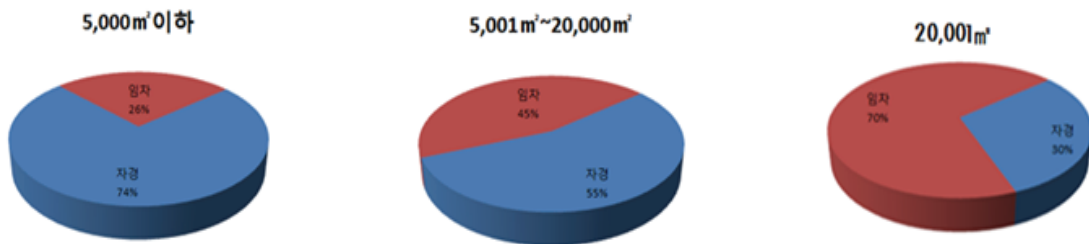
○ <표 4-8>은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기준) 자경/임차 비율을 보여줌

- 밭농업 규모가 클수록 임차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4-10>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기준) 자경/임차 현황

구 분	5,000m <sup>2</sup> 이하		5,001~20,000m <sup>2</sup>		20,001m <sup>2</sup>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경	28	73.7	22	55.0	10	30.3	60	54.1
임차	10	26.3	18	45.0	23	69.7	51	45.9
계	38	100.0	40	100.0	33	100.0	111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4-12) 밭농업 규모별(공부상 밭) 자경/임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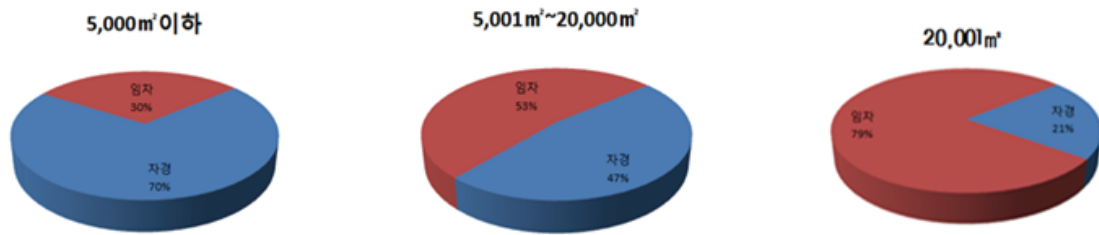
다) 밭농업 규모별 자경/임차 현황

-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자경/임차 비율을 살펴보면, 지목상 밭 규모보다 더 밭농업 규모에 따른 임차 증가 경향이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는 밭농업 규모 확대에 적극적인 농가의 경우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를 임차하여 밭농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규모의 경제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밭 영농규모 확대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음

<표 4-11> 밭농업 규모별(실제사용 “밭” 기준) 자경/임차 현황 비교

구 분	5,000㎡ 이하		5,001~20,000㎡		20,001㎡ 이상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경	28	70.0	19	47.5	7	21.2	54.0	47.8
임차	12	30.0	21	52.5	26	78.8	59.0	52.2
계	40	100	40	100	33	100.0	113.0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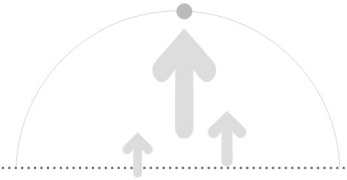
(그림 4-13) 밭농업 규모별(실제 사용 밭) 자경/임차 현황





# 5

## 발 실태 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 5. 밭 실태 조사의 효율적 추진방안

### 5.1 체계적인 밭 실태 조사의 필요성

- 밭농업직불제 추진의 효율적 지원 필요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사업물량의 정확한 추정과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설계 등이 필요한데, 이는 체계적인 밭 실태조사를 통하여 뒷받침 될 수 있음
- 밭농업 관련 통계가 취약함
  - 밭 농가의 농지이용현황과 농가별 실 재배품목, 작물별 식부면적 및 주요 작물의 소득자료 등 밭 실태에 대한 통계는 ① 밭작물은 윤작, 간작, 휴경 등의 영농형태가 있고 ② 지목상 밭 면적과 실제 밭작물 재배면적이 다르며 ③ 통계생산 기관마다 조사기준이 상이하고 ④ 농지원부 등 기존의 농지 관련 통계와의 연계가 되지 않는 등 밭농업 관련 통계가 불완전한 상황임
- 밭 실태의 체계적인 조사와 DB 관리가 필요함
  - 밭 실태와 변화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하기 위해서는 밭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통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효율적인 DB 관리가 요구됨
  - 밭 작물의 지역특화 재배와 주산단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조사와 DB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이 필요함
  - 밭 농업직접지불제도 및 각종 밭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밭 농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밭 관련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가 필요함

### 5.2 밭 실태 조사 현황

- 농가경영체 등록자료 DB 구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하여 2011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농가경영체등록자료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DB 데이터의 부분적인 업데이트 시도
  - 밭농업직불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에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제도이행 점검과 함께 데이터 업데이트를 시도한 바 있음

- 그러나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한 검증과 업데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데이터 오류 점검과 수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5.3 밭 실태 조사시 고려사항

#### ○ 밭 실태 조사 목적의 명확화

-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이 달라지게 됨
-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의 범위에 따라 조사와 데이터 입력, 오류수정, 업데이트,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게 됨
- 조사목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 조사 목적에 적합한 조사설계 방법의 채택

- 전수조사 방식은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조사와 DB 구축 및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사자료 활용에 대한 시의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신청후 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단계의 DB는 시차에 따른 일정 부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조사목적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시간내에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파악하려는 것인가에 따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조사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본조사의 경우에 농가의 대표성에 초점을 두느냐, 특정 품목 재배지를 포함시키는 데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사설계가 달라질 수 있음
  - 표본조사 목적에 따라서는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밭농업이 지리적으로 편포되어 있고, 특정 작물의 경우 지역특화 및 주산단지화 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4 밭 실태 조사 DB 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 ○ DB내 데이터 관리 구조의 개선

- 현재 구축되어 있는 농가경영체등록자료 DB는 농가경영체 등록번호가 기본키(primary key)로 되어 있어 동일 필드 지번에 중복 데이터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효율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방안의 마련

- DB 자료가 방대하고, 데이터 업데이트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 업데이트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데이터 업데이트 절차를 단순, 명료하게 하여 DB가 실시간상으로 최신의 자료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발농업직불제 신청시 데이터의 정확성과 오류를 점검하여 수정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것도 데이터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토지대장전산정보와 농지취득자격발급대장, 조건불리지역직불보조금자료, 농지원부 등과 연계시켜 관리 및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5.5 발농업직불제의 효율적 지원방안

○ 농가경영체등록정보 DB의 발농업직불제 추진 지원상의 제한점

- 사업추정물량과 사업신청간의 괴리 발생
  - 발농업직불제 지원대상물량은 밭 있는 농가 103만호 중에서 주로 자금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0.1ha 미만의 20만호를 제외한 83만호 정도로 추정한 바 있음(김태곤 외, 2005)
  - 한편, 2012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이 중에서 밭작물 19개 품목 재배농가수를 681천호로 추정한 바 있으며, 19개 품목 재배 필지 수를 1,552천 필지로 추정하였음
  - 그런데, 2012년에 실제로 발농업직불제를 시범 시행한 결과, 예상 필지의 43% 정도만이 신청하여 추정치와 실제 신청간에 많은 괴리가 발생하였음
  -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발농업직불금은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한해 당가당 1,000㎡ 이상 4ha 이하의 범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지목이 밭이 아닌 발농업 면적과 지목상 밭이더라도 농가당 1,000㎡ 미만, 4ha 초과분의 농지는 배제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음
  - 1,000㎡를 상회하더라도 농가에 따라서는 소액의 직불금이 농가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농업직불제의 이행점검 추진방안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병행 추진
  - 발농업직불제의 이행점검 방법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대별할 수 있음
  - 전수조사는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데 정확성이 높은 반면에 시간과 비용

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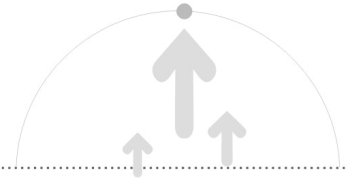
- 반대로 표본조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특히, 밭농업직불제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이 포함되어 있어, 두 가지를 모두 점검하려면 조사기간이 매우 길게 소요되고, 조사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목적에 따라 기동력을 갖는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전수조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전국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구성과 업데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전수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표본조사는 농가 의향조사와 특정 지역단위에 대한 상세조사 등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음.
- 경제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무선표집, 층화표집 등의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일정수준 이상의 오차가 발견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상세 조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 밭농업직불제도 운영 및 개선 지원방안

- 밭농업직불제는 밭농업의 다양한 품목이나 지역성을 고려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밭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가특성별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밭농업은 다양한 작부체계가 존재하고, 밭농업 특성상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돌려짓기를 요하는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작부체계에 대한 상세조사를 통하여 가능하면 많은 품목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전국 면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주산단지나 지역특화작목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으므로 밭작물 특화지역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충남 서산의 생강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에 속함.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지라도 해당 지역에서는 농가소득 구성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직불대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음

# 6

## 결론 및 제언







## 6. 결론 및 제언

- 이 연구를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밭 실태와 특징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전수조사에 의해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농가경영체등록정보 DB의 운영 및 관리와 밭직불제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음
- 연도별로 밭작물 품목별 재배규모와 생산량 및 소득에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연작피해 방지 위한 돌려짓기,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와 수익성 추구를 위한 작목전환 등으로 일정 부분 변동이 있으나, 밭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높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가경영에서 밭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밭농업 지원에 대한 정책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 2012년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업 신청물량이 당초 추정했던 사업물량의 절반 이하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밭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었음
  - 가장 큰 원인으로는 농가경영체등록정보 DB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지 단위를 기본키로 하지 않고 농가등록번호를 기본키로 하고 있어서 동일 필지에 여러 작물이 재배될 경우 면적이 중복 계상되어 실제 필지보다 많은 면적을 지원 대상으로 추정한 점을 들 수 있음
  - 그밖에도 지원 하한인 1,000㎡ 이하의 밭을 경작하는 농가나 1,000㎡를 약간 상회하는 밭을 경작하는 농가 등이 직불금 신청에 따른 실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포기한 이유 등이 있음. 또한 지원 상한인 4ha를 초과하는 필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예상보다 적은 필지만이 신청된 이유가 될 수 있음
- 밭은 물을 담지 않은 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연작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돌려짓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밭농업 직불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재배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밭실태 조사결과, 지목이 임야인 농지를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목 변경 없이 임야에 밭작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밭 실태 파악 및 밭 직불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밭농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데이터의 효율적 갱신과 관리 및 직불제 등 정책지원 노력 지속 필요
  - 농가조사자료 DB 구축과 실경작 사이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조사 목적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사설계를 달리하여, 농가조사 및 밭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가적으로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밭농업직불제의 농가소득 안정 효과 분석, 밭작물 작부체계 특성 조사, 밭작물 특화지역의 농가 영농실태 조사,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문헌

- 권대수. 밭농업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2006. 4.
- 김병철. 밭규모화의 특성과 정책적 과제, 농업기반공사, 2004.
- 김태곤외 2인. 밭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1.
-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 자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농촌진흥청. 원예작물 주산지 통계, 2007. 6.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2012.
-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 2012.
- 한국농어촌공사. 2012년도 농업경제조사·분석기준, 2012.
- 한국농촌공사. 밭 영농규모화사업 도입방안 연구, 2007.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3, 2013.
- Bahls, Steven C. Preservation of Family Farms - The Way Ahead.  
[www.NationalAgLawCenter.org](http://www.NationalAgLawCenter.org). 1997.
- Calus, Mieke and Ludwig Lauwers. "Persistence of Family Farming,  
Learning From Its Dynamics". 111 EAAE-ZAAE Seminar 'Small  
Farms: Decline or Persistence'. Univeristy of Kent, Canterbury,  
UK. 2009.
- [http://digitalorganic.net/bbs/board.php?bo\\_table=tech&wr\\_id=179](http://digitalorganic.net/bbs/board.php?bo_table=tech&wr_id=179).
- [http://news.pcs21.net/newshome/mtnmain.php?aid=5314&mkey=](http://news.pcs21.net/newshome/mtnmain.php?aid=5314&mkey=scatelist&mtnkey=articleview)  
[scatelist&mtnkey= articleview.](http://news.pcs21.net/newshome/mtnmain.php?aid=5314&mkey=scatelist&mtnkey=articleview)
- <http://www.alimynews.com/detail.php?number=1089&thread=22r12>.
- Office of Evaluation. Monitoring & Evaluation Guidelines.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2012.
- Ross, Kenneth 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al  
Plannin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UNESCO. 2005.

Rosset, Peter M. The Multiple Functions and Benefits of Small Farm Agriculture in the Context of Global Trade Negotiations.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1999.

<부표>

1. 시·군별 밭 경지면적(2011)

(단위 ; ha)

시도	시·군	면적	시도	시·군	면적	시도	시·군	면적
경기도	수원시	567	강원도	춘천시	4,735	충북	청주시	1,316
	성남시	417		원주시	4,723		충주시	8,805
	의정부	356		강릉시	4,563		제천시	7,736
	안양시	64		동해시	697		청원군	6,941
	부천시	374		태백시	993		보은군	4,557
	광명시	344		속초시	190		옥천군	5,239
	평택시	5,554		삼척시	3,529		영동군	7,691
	동두천	381		홍천군	8,279		진천군	3,094
	안산시	1,287		횡성군	6,368		괴산군	7,792
	고양시	2,502		영월군	5,878		음성군	7,435
	과천시	256		평창군	8,813		단양군	5,083
	구리시	416		정성군	6,953		증평군	910
	남양주	3,041		철원군	2,587		소계(12)	66,599
	오산시	208		화천군	2,143			
	시흥시	1,486		양구군	3,030			
	군포시	133		인제군	3,141			
	의왕시	435		고성군	658			
	하남시	576		양양군	1,130			
	용인시	3,312		소계(18)	68,410			
	과주시	4,589						
	이천시	7,774						
	안성시	6,834						
	김포시	2,251						
	화성시	7,780						
	광주시	2,205						
	양주시	2,268						
	포천시	6,434						
	여주군	7,499						
	연천군	4,809						
	가평군	2,352						
	양평군	4,135						
	소계(31)	80,639						

시도	시·군	면적	시도	시·군	면적	시도	시·군	면적	
충남	천안시	7,016	전북	전주시	1,815	전남	목포시	693	
	공주시	4,187		군산시	1,132		여수시	5,471	
	보령시	3,283		익산시	4,810		순천시	7,498	
	아산시	4,788		정읍시	6,929		나주시	7,119	
	서산시	5,489		남원시	3,996		광양시	3,909	
	논산시	6,150		김제시	4,916		담양군	2,513	
	계룡시	131		완주시	6,253		곡성군	2,886	
	금산시	5,525		진안군	4,271		구례군	2,138	
	연기군	2,469		무주군	3,739		고흥군	7,431	
	부여군	3,090		장수군	3,573		보성군	4,766	
	서천군	2,576		임실군	2,711		화순군	3,866	
	청양군	2,288		순창군	3,162		장흥군	2,630	
	홍성군	3,888		고창군	10,403		강진군	2,232	
	예산군	6,674		부안군	4,009		해남군	11,908	
	태안군	4,626		소계(14)			61,719	영암군	5,737
	당진군	4,431						무안군	9,472
소계(16)		66,611				함평군	4,571		
						영광군	4,474		
						장성군	4,990		
						완도군	4,378		
						진도군	5,393		
						신안군	9,312		
						소계(22)		113,387	

시도	시·군	면적	시도	시·군	면적	시도별	밭 면적(ha)	구성비 (%)
경북	포항시	5,058	경남	창원시	4,783	서울	532	0.07
	경주시	5,857		진주시	6,430	부산	2,605	0.35
	김천시	9,418		통영시	2,164	대구	4,582	0.62
	안동시	12,789		사천시	2,371	인천	6,925	0.95
	구미시	3,068		김해시	2,692	광주	3,779	0.51
	영주시	8,262		밀양시	5,675	대전	2,837	0.38
	영천시	10,043		거제시	2,191	울산	4,613	0.62
	상주시	10,988		양산시	1,335	제주	58,997	8.00
	문경시	5,729		의령군	1,923	소계	84,870	1.99
	경산시	6,496		함안군	3,080	경기	80,639	10.9
	군위군	4,293		창녕군	3,820	강원	68,410	9.3
	의성군	8,462		고성군	2,869	충북	66,599	9.0
	청송군	5,885		남해군	2,911	충남	66,611	9.0
	영양군	4,600		하동군	3,366	전북	61,719	8.4
	영덕군	3,018		산청군	3,015	전남	113,387	15.4
	청도군	6,348		함양군	3,189	경북	136,204	18.4
	고령군	1,436		거창군	4,908	경남	59,687	8.1
	성주군	2,502		합천군	2,965	소계	653,256	9.51
	칠곡군	3,078		소계(18)	36,464	합계	738,126	100.0
	예천군	7,261						
	봉화군	8,332						
	울진군	2,096						
	울릉군	1,185						
소계(23)	96,348	합계(154)	643,256					

## 2. 연도별, 주산지별 작물재배면적 추이

### 2.1 참깨 주산지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31,077	31,321	28,794	34,875	27,154	25,649	29,811
충북 충주	464	402	305	420	301	335	371
전남 해남	770	1,107	944	1,419	904	879	1,003
전남 무안	1,018	1,311	1,153	1,580	1,199	1,124	1,230
전남 함평	483	555	558	581	478	474	521
전남 신안	1,798	2,150	2,114	2,619	2,299	1,820	2,133
경북 안동	1,031	924	743	766	772	758	832
경북 군위	552	445	400	414	309	297	402
경북 의성	837	682	654	727	634	647	696
경북 예천	951	672	567	679	525	556	658
제주 제주	926	1,123	1,163	1,192	931	619	992

### 고랭지 감자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3,971	3,202	3,364	3,322	3,801	3,784	3,574
강원 강릉	343	265	346	307	400	365	337
강원 홍천	303	224	265	272	351	358	295
강원 횡성	281	238	229	165	256	229	233
강원 평창	1,958	1,811	1,595	1,765	1,963	2,095	1,864
강원 정선	493	329	302	359	342	241	344
강원 인제	339	136	286	242	202	253	243

### 봄 감자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14,960	13,033	13,048	14,198	16,302	19,126	15,111
강원 홍천	337	308	-	-	-	-	107
강원 강릉	544	428	425	461	541	486	480
충남 서산	377	325	276	506	567	590	440
충남 당진	651	622	462	654	697	778	644
전북 남원	318	304	302	275	236	314	291
전남 보성	624	523	567	799	1,066	814	732
경남 밀양	367	-	274	234	238	266	229
제주 제주	520	-	310	376	317	553	346
제주 서귀포	928	764	592	648	705	684	720



## 고추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53,097	54,876	48,825	44,817	44,584	42,574	48,128
경기 화성	713	608	-	-	556	504	396
강원 영월	619	651	645	414	630	486	574
충북 충주	783	776	542	524	419	354	566
충북 제천	1,191	1,250	1,012	951	837	799	1,006
충북 청원	665	625	517	504	441	526	546
충북 보은	544	474	490	315	421	401	440
충북 괴산	1,384	1,284	1,045	1,075	972	757	1,086
충북 음성	604	561	447	377	344	296	438
충북 단양	832	928	867	688	664	640	769
충남 공주	322	428	410	260	342	363	354
충남 청양	648	715	727	579	574	527	628
충남 홍성	456	434	397	353	341	304	380
충남 예산	392	446	358	347	316	296	359
충남 태안	729	721	616	616	654	525	643
충남 당진	452	409	422	344	180	273	346
전북 정읍	807	866	758	704	689	806	771
전북 김제	466	423	374	429	361	272	387
전북 완주	482	424	366	317	314	308	368
전북 진안	723	660	660	492	629	659	637
전북 무주	497	549	493	402	437	377	459
전북 임실	659	681	466	490	501	508	550
전북 고창	1,101	1,067	886	904	834	810	933
전북 부안	399	489	425	361	302	335	385
전남 순천	342	302	338	247	378	292	316
전남 나주	478	485	455	465	410	424	452
전남 화순	464	386	320	306	268	296	340
전남 해남	1,061	1,141	955	921	933	781	965
전남 무안	432	437	412	267	310	300	359
전남 영광	880	946	731	662	645	536	733
전남 진도	486	482	321	353	336	298	379
전남 신안	1,040	1,261	1,085	820	950	720	979
경북 경주	457	527	461	419	420	345	438
경북 안동	2,175	2,223	2,287	2,144	1,934	1,941	2,117
경북 영주	717	731	784	602	674	578	681
경북 영천	592	486	460	360	363	248	418
경북 상주	603	734	525	434	391	454	523
경북 의성	1,488	1,505	1,268	1,172	1,072	984	1,248
경북 청송	1,133	1,244	1,039	916	999	774	1,017
경북 영양	1,588	1,879	1,442	1,578	1,471	1,476	1,572
경북 예천	968	1,047	819	788	740	572	822
경북 봉화	1,424	1,681	1,557	1,288	1,511	1,277	1,456

## 김장배추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14,368	12,178	14,693	14,462	13,540	17,326	14,427
충북 제천	210	90	209	183	129	174	165
충남 홍성	341	261	399	392	335	423	358
충남 당진	515	493	313	366	352	437	412
전북 고창	586	474	512	336	323	313	424
전남 나주	288	238	217	300	211	267	253
전남 영암	395	290	269	308	254	275	298

## 김장무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9,758	7,162	8,948	7,771	7,473	9,748	8,477
충남 당진	318	314	356	306	302	334	322
전북 고창	1,451	942	864	892	838	1,380	1,061
전북 부안	241	151	152	78	73	114	135
전남 나주	323	246	310	176	122	162	223
전남 영암	465	397	446	288	418	557	429

## 쌀보리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25,423	24,374	26,327	25,169	21,341	17,469	23,350
전북 군산	1,662	2,035	2,934	3,132	3,036	2,958	2,626
전북 익산	773	800	879	923	791	1,256	903
전북 김제	2,918	3,408	3,601	1,646	2,787	2,470	2,805
전북 고창	389	268	288	496	179	280	316
전북 부안	2,066	1,783	2,321	2,402	2,252	1,891	2,119
전남 나주	1,671	1,214	1,193	1,551	686	493	1,134
전남 보성	1,111	1,031	990	920	775	689	919
전남 장흥	1,327	1,339	1,023	972	776	779	1,036
전남 강진	1,147	955	1,069	1,153	1,117	745	1,031
전남 해남	614	600	999	1,099	858	942	852
전남 영암	971	892	751	959	761	454	798
전남 함평	1,077	760	634	718	606	421	702
전남 영광	2,682	2,677	3,018	2,473	2,575	1,042	2,411
전남 장성	453	390	372	296	149	5	277
전남 신안	1,168	1,359	1,434	1,024	422	306	952

## 맥주보리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23,520	21,814	19,362	16,890	11,995	6,994	16,762
전남 나주	1,246	1,503	1,321	1,078	417	334	983
전남 고흥	1,104	980	700	604	609	430	737
전남 보성	1,497	1,362	1,250	1,355	1,160	679	1,217
전남 장흥	2,417	1,892	1,768	1,503	974	505	1,509
전남 강진	2,139	1,973	1,336	1,401	731	592	1,362
전남 해남	5,179	3,941	3,711	3,455	2,669	1,141	3,349
전남 영암	953	972	1,032	342	225	181	617
전남 함평	486	574	536	255	252	139	373
전남 완도	305	-	-	-	-	-	50
경남 사천	564	580	600	622	355	231	492
경남 하동	626	606	417	413	222	184	411
제주 북제주	1,450	-	-	-	-	-	241
제주 제주	-	2,047	1,994	2,084	1,459	584	1,361

## 겉보리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7,601	7,548	8,082	6,557	5,197	4,591	6,596
전북 군산	333	358	547	284	273	73	311
전북 김제	576	328	407	128	69	601	351
전북 부안	322	544	398	93	293	276	321
경북 경주	306	372	251	165	86	95	212
경남 밀양	1,630	1,634	1,879	2,071	1,773	1,587	1,762
경남 함안	212	202	161	113	137	182	167
경남 창녕	298	283	299	340	331	225	296
경남 합천	286	-	-	-	-	-	47

## 양파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15,315	17,751	15,392	18,514	22,113	22,976	18,676
전남 고흥	553	645	521	717	820	795	675
전남 해남	1,197	1,341	834	1,270	1,101	1,444	1,197
전남 무안	3,446	3,874	3,575	3,982	4,074	3,703	3,775
전남 함평	1,219	1,350	1,162	1,352	1,850	1,531	1,410
전남 신안	1,143	1,350	1,104	1,630	2,346	2,680	1,708
경북 영천	272	338	165	145	172	163	209
경북 군위	267	241	158	235	324	286	251
경북 의성	300	307	200	253	248	76	230
경북 청도	254	222	200	205	220	236	222
경남 창녕	1,109	1,351	1,185	1,228	1,552	1,457	1,313
경남 함양	385	397	497	587	632	668	527
경남 합천	554	629	624	809	1,164	1,557	889
제주 북제주	837	-	-	-	-	-	139
제주 제주	-	1,091	713	897	1,029	1,063	798

## 마늘

시 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전국	28,594	26,986	28,416	26,323	22,414	24,035	26,128
충남 서산	587	656	735	693	620	725	669
충남 태안	756	864	903	796	636	763	786
전남 고흥	2,645	2,608	2,831	2,580	2,167	2,069	2,483
전남 해남	1,954	1,788	1,854	1,492	1,447	1,412	1,657
전남 무안	1,604	1,140	1,298	861	593	661	1,026
전남 함평	513	465	433	400	270	295	396
전남 신안	3,098	3,009	2,544	2,549	1,785	1,774	2,459
경북 영천	866	796	922	864	803	919	861
경북 군위	299	293	303	266	229	288	279
경북 의성	1,678	1,546	1,442	1,483	1,268	1,495	1,485
경남 창녕	1,577	1,581	1,823	1,861	1,539	2,066	1,741
경남 남해	1,874	1,720	1,774	1,696	1,397	1,356	1,636
경남 합천	389	423	514	544	528	470	478
제주 북제주	1,987	-	-	-	-	-	331
제주 제주	-	1,662	1,775	1,570	1,372	1,217	1,266
제주 남제주	1,777	-	-	-	-	-	296
제주 서귀포	-	1,820	1,950	1,878	1,602	1,589	1,473

### 3. 주요 작물의 소득 변화(2011년 불변가격)

(단위: 천원/10a)

작물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b>조정지수</b>	<b>1.287</b>	<b>1.273</b>	<b>1.172</b>	<b>1.075</b>	<b>1.000</b>	
<b>겉보리</b>						
조수입	497	490	495	355	378	443
경영비	300	278	253	228	204	253
소 득	197	212	242	127	174	190
자가노력	41	81	83	88	78	74
생산비	341	359	336	316	284	327
<b>쌀보리</b>						
조수입	502	480	420	371	356	426
경영비	269	271	266	260	200	253
소 득	233	210	154	111	156	173
자가노력	31	36	36	61	57	44
생산비	300	307	302	321	257	297
<b>맥주보리</b>						
조수입	511	531	493	363	371	454
경영비	254	267	265	243	219	250
소 득	257	264	228	120	152	204
자가노력	97	93	91	96	64	88
생산비	351	360	356	339	283	338
<b>팥옥수수</b>						
조수입	1,461	1,431	1,469	1,310	1,232	1,381
경영비	453	494	511	487	457	480
소 득	1,008	937	958	823	775	901
자가노력	418	415	375	397	361	393
생산비	871	909	886	884	818	873
<b>콩</b>						
조수입	825	749	799	868	844	817
경영비	274	204	190	192	196	211
소 득	551	545	609	676	648	606
자가노력	189	162	147	141	125	153
생산비	463	366	337	333	321	364
<b>마늘</b>						
조수입	3,021	2,710	2,580	4,588	4,562	3,492
경영비	1,163	1,251	1,171	1,173	1,510	1,254
소 득	1,858	1,459	1,409	3,415	3,052	2,238
자가노력	611	647	587	370	562	555
생산비	1,774	1,898	1,758	1,543	2,072	1,809
<b>노지고추</b>						
조수입	3,274	3,356	3,348	2,636	4,217	3,366
경영비	968	1,036	1,002	999	993	1,000
소 득	2,306	2,320	2,346	1,637	3,224	2,366
자가노력	884	948	954	876	880	908
생산비	1,852	1,984	1,956	1,875	1,873	1,908
<b>참깨</b>						
조수입	1,049	1,270	656	1,057	1,060	1,018
경영비	196	205	186	328	325	248
소 득	853	1,065	470	729	735	770

자가노력	328	342	291	427	398	357
생산비	524	547	477	755	723	605
<b>블감자</b>						
조수입	1,766	2,271	2,104	1,963	1,992	2,019
경영비	882	1,059	983	961	968	971
소 득	884	1,212	1,121	1,002	1,024	1,048
자가노력	353	365	323	311	289	328
생산비	1,235	1,424	1,306	1,272	1,257	1,299
<b>가을감자</b>						
조수입	2,428	1,869	2,413	2,368	2,122	2,240
경영비	1,006	1,009	1,098	988	980	1,016
소 득	1,422	860	1,315	1,380	1,142	1,224
자가노력	322	348	296	292	307	313
생산비	1,328	1,357	1,394	1,280	1,287	1,329
<b>고구마</b>						
조수입	2,034	2,249	2,215	2,264	2,585	2,269
경영비	835	969	1,014	987	1,107	982
소 득	1,199	1,280	1,201	1,277	1,478	1,287
자가노력	313	412	435	382	460	400
생산비	1,148	1,381	1,449	1,369	1,567	1,382
<b>양파</b>						
조수입	2,221	4,007	3,441	3,487	2,908	3,213
경영비	942	1,023	1,046	1,006	1,006	804
소 득	1,279	2,984	2,395	2,481	1,902	2,209
자가노력	585	428	395	365	362	427
생산비	1,527	1,451	1,441	1,371	1,368	1,231
<b>대파</b>						
조수입	3,993	2,444	2,917	4,291	2,219	3,173
경영비	1,211	1,229	1,258	1,291	1,053	1,208
소 득	2,782	1,215	1,659	3,000	1,166	1,965
자가노력	583	535	537	479	532	533
생산비	1,794	1,764	1,795	1,770	1,585	1,742
<b>쪽파</b>						
조수입	3,599	3,033	3,314	4,313	3,024	3,457
경영비	1,012	1,203	1,178	1,293	1,415	1,220
소 득	2,587	1,830	2,136	3,020	1,609	2,237
자가노력	508	423	563	549	737	556
생산비	1,520	1,626	1,741	1,842	2,152	1,776
<b>평균</b>						
조수입	1,942	1,921	1,905	2,160	1,991	1,984
경영비	883	882	912	912	932	904
소 득	1,059	1,039	993	1,248	1,059	1,080
자가노력	376	374	365	345	372	366
생산비	1,259	1,256	1,277	1,257	1,304	1,270

#### 4. 밭 농업실태 조사현황

도별	시·군	읍·면	조사마을		조사농가 수		
			계획	조사	계획	조사	증감
경기	여주군 (7,499)	가남면 (1,078)	태평1리 신해1리	상황1리	16	10	-6
강원	홍천군 (8,279)	두촌면 (849)	철정1리 천현1리	역내리 천현1리	16	16	-
충북	음성군 (7,435)	음성읍 (1,058)	평곡1리 석인1리	소여2리 삼생3리	16	16	-
충남	서산시 (5,489)	부석면 (1,061)	취평1리 대두1리	취평1리 대두1리	16	17	1
전북	고창군 (10,403)	홍덕면 (788)	홍동마을 (홍덕리) 녹사마을 (동사리)	홍덕면 용반리 해림면 안산리 공음면 칠암리 공음면 용수리 대산면 해룡리	16	18	2
전남	해남군 (11,908)	황산면 (1,515)	송호리 일신리	송호리 연호리	16	15	-1
경북	안동시 (12,789)	풍산읍 (1,147)	매곡리 소산리	매곡리 괴정리	16	16	-
경남	밀양시 (5,675)	상남면 (620)	마산리 동산리	상동면 매화리 상동면 옥산리	16	10	-6
계	8 (69,477ha)	8 (8,116ha)	16	16	128	118	-10

주: 조사농가 수 : 마을당 8호

## 5. 도별, 작물별 밭 농업소득

단위: ha, 원

경기도				강원도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 소득	총 소득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 소득	총 소득
마늘	165	3,077.9	507	콩	17,177	653.0	11,216
콩	46,058	653.0	30,075	고추	27,488	3,250.6	89,352
고추	18,866	3,250.6	61,325	옥수수	79,006	710.8	56,157
옥수수	2,645	779.4	2,061	들깨	11,579	192.2	2,225
들깨	2,643	192.2	507	고구마	330	1,489.9	491
가지	24,862	7,028.0	174,730	배추	2,994	929.9	2,784
고구마	19,854	952.3	18,906	감자	2,991	884.3	2,644
배추	32,328	1,385.3	44,783	호박	1,650	6,436.9	10,620
감자	1,540	806.2	1,241	오이	5,049	7,046.0	35,575
수수	355	779.4	276	두릅	2,655	2,014.6	5,348
도라지	55,155	2,488.0	137,225	인삼(6)	3,636	19,690.8	71,595
땅콩	1,672	623.0	1,041	황기	-	2,014.6	0
논벼	579	506.7	293	갯	1,669	2,014.6	3,362
인삼(4)	19,835	7,832.6	155,359				
복숭아	22,250	1,613.2	35,893				
참깨	8,911	741.3	6,605				
16	257,718	2,544.7	670,827	13	156,224	1,284.0	291,369



### 5. 도별, 작물별 밭 농업소득(계속)

단위: ha, 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 소득	총 소득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 소득	총 소득
고추	50,755	3,250.6	164,984	고추	1,657	3,250.6	5,386
참깨	4,958	741.3	3,675	참깨	2,859	741.3	2,119
콩	103,422	653.0	67,534	콩	59,319	653.0	38,735
들깨	10,251	192.2	1,970	들깨	15,322	250.3	3,835
배추	1,487	1,112.0	1,653	배추	279	1,098.3	306
무	1,058	1,923.7	2,035	마늘	77,852	3,077.9	239,620
수수	5,956	942.9	5,615	고구마	4,677	1,416.7	6,625
고구마	694	1,489.9	1,033	감자	22,932	1,491.7	34,207
옥수수	11,584	942.9	10,922	생강	14,696	1,375.6	20,215
땅콩	2,645	623.0	1,647	호박	1,270	7,535.5	9,570
엽연초	-	974.0	0	쪽파	7,616	1,392.7	10,606
인삼(4)	93,554	6,840.4	639,946	땅콩	25,006	623.0	15,578
사과	15,871	2,911.9	46,214	논벼	1,180	617.6	728
복숭아	23,140	2,767.7	64,044	관상수	812	1,772.4	1,439
은행	6,611	2,767.7	18,297				
15	331,986	2,824.8	1,029,569	14	235,477	1,604.1	388,969

### 5. 도별, 작물별 밭 농업소득(계속)

단위: ha, 원

전라북도				전라남도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소득	총 소득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소득	총 소득
수박	137,179	1,699.7	233,163	마늘	40,662	3,077.9	125,153
무	330,241	636.7	210,264	배추	211,145	1,261.1	266,274
보리	42,974	274.4	11,792	고추	42,948	3,250.6	139,606
고추	73,041	3,250.6	237,427	보리	8,264	138.8	1,147
고구마	51,238	1,907.2	97,721	밀	54,143	159.7	8,646
옥수수	72,727	781.7	56,850	콩	15,847	653.0	10,348
땅콩	9,912	623.0	6,175	참깨	15,258	741.3	11,310
오이	9,911	3,529.9	34,984	조	991	653.0	647
밀	29,752	159.7	4,751	대파	-	360.8	0
콩	112,064	653.0	73,177	양파	6,612	1,917.8	12,680
마늘	330	3,077.9	1,015	양배추	6,612	988.9	6,538
배추	35,595	1,129.0	40,186				
양파	2,975	1,917.8	5,705				
수단	69,405	152.7	10,598				
인삼(4)	66,114	8,862.0	585,902				
잔디	-	907.5	0				
묘목	42,970	1,772.4	76,160				
조경수	-	1,772.4	0				
18	1,086,428	1,410.5	1,685,870	11	402,482	1,404.1	582,349

### 5. 도별, 작물별 밭 농업소득(계속)

단위: ha, 원

경상북도				경상남도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소득	총 소득	작물별	재배면적	m <sup>2</sup> 당소득	총 소득
콩	180,696	653.0	117,994	콩	10,019	653.0	6,542
고추	36,026	3,250.6	117,106	고추	4,788	3,250.6	15,563
생강	1,716	1,971.3	3,382	들깨	2,654	250.3	664
참깨	17,852	741.3	13,233	팥	164	653.0	107
수박	3,305	4,034.1	13,332	감자	1,653	1,096.9	1,813
메론	3,305	3,858.6	12,752	고구마	1,060	1,010.5	1,071
논벼	2,451	632.9	1,551	배추	994	993.6	987
				감	14,250	1,951.0	27,801
				대추	661	1,905.0	1,259
7	245,351	1,095.3	279,350	9	36,243	1,539.9	55,807

## 6. 2011/2012/2013년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경기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감 자	1,540	감 자	7,217	감 자	7,217
2	고구마	19,854	고구마	956	고구마	956
3	고 추	18,866	고 추	18,688	고 추	18,688
4	도라지	55,155	도라지	55,155	도라지	56,155
5	들 깨	2,643	들 깨	2,861	들 깨	2,861
6	땅 콩	1,672	땅 콩	1,672	땅 콩	1,672
7	마 늘	165	마 늘	383	마 늘	383
8	-		무	273	무	273
9	배 추	32,328	배 추	46,562	배 추	46,562
10	복숭아	22,250	복숭아	22,250	복숭아	22,250
11	옥수수	2,645	옥수수	2,645	옥수수	2,645
12	인삼	19,835	인삼	20,387	인삼	20,387
13	참 깨	8,911	참 깨	34,052	참 깨	32,052
14	콩	46,058	콩	40,299	콩	40,299
15	가 지	24,862	-		-	
16	논 벼	579	-		-	
17	수 수	355	-		-	
계		257,718		253,400		252,400

(강원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감 자	2,991	감 자	1,156	감 자	495
2	고구마	330	고구마	330	고구마	330
3	고 추	27,488	고사리	175	고사리	16
4	논 벼	1,048	고 추	19,204	고 추	25,279
5	두 립	2,655	두 립	2,655	두 립	2,655
6	들 깨	11,579	들 깨	10,013	들 깨	9,234
7	-		마 늘	1,330	마 늘	1,330
8	배 추	2,994	배 추	661	배 추	661
9	약 초	361	수 수	661	수 수	661
10	-		약 초	361	약 초	361
11	오 이	5,049	오 이	5,049	오 이	3,609
12	옥수수	79,006	옥수수	90,634	옥수수	85,721
13	-		울 무	2,644	울 무	2,644
14	인삼	3,636	인삼	3,636	-	
15	콩	17,177	콩	19,171	콩	22,179
16	호 박	1,650	호 박	1,650	호 박	2,410
17	잣	1,669	-		-	
계		157,633		159,330		157,585

(충청북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고구마	694	고구마	694	고구마	694
2	고 추	50,755	고 추	47,771	고 추	47,771
3	담 배	49,586	담 배	49,586	담 배	49,586
4	들 깨	10,251	들 깨	12,360	들 깨	7,567
5	땅 콩	2,645	땅 콩	2,786	땅 콩	2,786
6	무	1,058	무	1,058	무	1,058
7	배 추	1,487	배 추	1,487	배 추	1,487
8	복숭아	23,140	복숭아	23,140	복숭아	26,445
9	사 과	15,871	사 과	15,871	사 과	15,871
10	수 수	5,956	수 수	5,956	수 수	5,956
11	옥수수	11,584	옥수수	17,212	옥수수	17,212
12	은 행	6,611	은 행	6,611	은 행	6,611
13	인 삼	93,554	인 삼	93,554	인 삼	93,554
14	참 깨	4,958	참 깨	7,898	참 깨	6,907
15	콩	103,422	콩	107,957	콩	107,131
16	-	-	-	-	단호박	992
계		381,572		393,941		391,628

(충청남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감 자	22,932	감 자	22,576	감 자	20,868
2	고구마	4,677	고구마	5,159	고구마	13,484
3	고 추	1,657	고 추	1,274	고 추	1,604
4	관상수	812	당 근	5,121	당 근	5,121
5	들 깨	15,322	들 깨	7,315	들 깨	8,127
6	땅 콩	25,006	땅 콩	11,169	땅 콩	10,359
7	마 늘	77,852	마 늘	85,590	마 늘	89,254
8	생 강	14,696	생 강	20,953	생 강	18,105
9	쪽 파	7,616	쪽 파	2,495	쪽 파	2,495
10	참 깨	2,859	참 깨	1,312	참 깨	870
11	콩	59,319	콩	69,374	콩	74,206
12	배 추	279				
13	호 박	1,270				
14	논 벼	1,180				
15						
계		235,477		232,338		244,493

(전라북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고구마	51,238	고구마	51,238	고구마	51,238
2	고 추	73,041	고 추	73,041	고 추	26,766
3	땅 콩	9,912	땅 콩	9,912	땅 콩	9,912
4	마 늘	330	마 늘	330	마 늘	330
5	묘 목	42,970	묘 목	42,970	묘 목	42,970
6	무	330,241	무	378,729	무	336,852
7	밀	29,752	밀	29,752	밀	29,752
8	배	16,528	배	16,528	메 론	6,612
9	배 추	35,595	배 추	330	배 추	52,123
10	보 리	42,974	보 리	42,974	보 리	42,974
11	수 단	69,405	수 단	31,863	수 단	36,347
12	수 박	137,179	수 박	137,179	수 박	137,179
13	양 파	2,975	양 파	2,975	양 파	2,975
14	옥수수	72,727	옥수수	72,727	옥수수	72,727
15	인 삼	66,114	인 삼	103,655	인 삼	102,477
16	-		-		생 강	1,653
17	오 이	9,911	오 이	9,911	오 이	9,911
18	콩	112,064	콩	112,064	콩	112,064
계		1,102,956		1,116,178		1,074,862

(전라남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고 추	42,948	고 추	44,269	고 추	44,269
2	대과	16,523	과	5,945	과	5,945
3	마 늘	40,662	마 늘	40,987	마 늘	40,987
4	밀	54,143	밀	39,270	밀	39,270
5	배 추	211,145	배 추	193,297	배 추	193,297
6	보 리	8,264	보 리	8,264	보 리	8,264
7	양배추	6,612	수 수	23,140	수 수	23,140
8	양 파	6,612	양 파	24,795	양 파	24,795
9	조	991	조	991	조	991
10	참 깨	15,258	참 깨	18,558	참 깨	18,558
11	콩	15,847	콩	22,458	콩	22,458
계		419,005		421,974		421,974

(경상북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고 추	36,026	고 추	35,375	고 추	37,314
2	논 벼	2,451	논 벼	2,451	논 벼	2,451
3	메 론	3,305	메 론	3,305	메 론	3,305
4	생 강	1,716	생 강	1,716	생 강	1,716
5	수 박	3,305	수 박	3,305	수 박	3,305
6	참 깨	17,852	참 깨	18,513	참 깨	18,116
7	콩	180,696	콩	166,045	콩	181,998
8	-	-	감 자	20,130	-	
계		245,351		250,840		248,205

(경상남도)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감	14,250	감	14,250	감	14,250
2	감 자	1,653	감 자	1,653	감 자	1,653
3	고구마	1,060	고구마	1,390	고구마	1,390
4	고 추	4,788	고 추	4,953	고 추	4,953
5	대 추	661	대 추	661	대 추	661
6	들 깨	2,654	들 깨	2,819	들 깨	2,819
7	배 추	994	배 추	994	배 추	994
8	콩	10,019	콩	10,845	콩	10,845
9	팥	164	팥	164	팥	164
계		36,243		37,729		37,729

7. 밭 농업 실태 농가조사표

밭 농업 실태 농 가 조 사 표

<안 내 말 씀>

- 0. 본 조사는 밭 실태를 파악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을 제고 등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밭 농가 여러분의 의견을 설문하는 조사입니다.
- 0. 조사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0.농가 성명 :	0.성별:	0.나이:	세
0.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0.주 소 :	도	시·군	읍·면 리

2012. 1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1. 경영면적(2012년)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 목		경영형태( 자경·임차)	농지면적(m <sup>2</sup> )			
		공부	실제		공부 상	실제 관리	미 이용	
							휴경	폐경
1								
2								
3								
4								
5								
6								
7								
8								
9								
10								
계								

- \* 1.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등 28개 지목 기재  
 2.휴경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나 지력증진, 노동력부족, 질병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로서 지번을 기재  
 3.폐경은 농지를 장기간 방치하여 경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복구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로서 지번을 기재

## 2. 작부체계

지목별	2011년			2012년			신규도입 작물
	1기작	2기작	3기작	1기작	2기작	3기작	
밭							
논							
임야							
과수원							
목장 용지							

### 3. 작물재배 현황-1(2012년)

일련 번호	재배품목	재배면적(m <sup>2</sup> )		실제수확 면적(m <sup>2</sup> )	수탁(임대)
		노지재배	시설재배		
1					
2					
3					
4					
5					
6					
7					
8					
9					
10					
계					

- \* 1.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 재배하거나, 여러 품목을 재배할 경우 칸을 분리하여 기재  
 2.다년생 작목이면서 해당 연도에 수확하지 않은 경우 실수확면적은 기재하지 않음  
 3.동일한 필지에 동일 품목을 년 2회 이상 재배할 경우에는 횟수마다 재배된 면적을 합산  
 4.해당 필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일정한 대가(수수료 등)를 받고 타인의 농작물을 생산해 주는 경우에는 “○” 표로 기재

#### 4. 작물재배 현황-2

(단위: m<sup>2</sup>)

일련 번호	2011년		2012년		2013년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재배작물	재배면적
1						
2						
3						
4						
5						
6						
7						
8						
9						
10						
계						

\* 2011년, 2012년은 실 재배작물과 재배면적을 기재하고 2013년은 재배계획을 기재

## 5. 2011년 / 2012년 비교-1

일련 번호	경영형태(자경, 임차)		밭 면적	
	변동사항	변동사유	변동사항	변동사유
1				
2				
3				
4				
5				
6				
7				
8				
9				
10				
계				

\* 1. 경영형태 변동사유: ①소득 확보 ②신규작물 도입 ③농지집단화 ④농업시설 설치  
⑤기타는 사유를 기재

2. 밭 면적 변동사유: ①매입 ②임차 ③매도 ④임대 ⑤기타는 사유를 기재

## 6. 2011년 / 2012년 비교-2

일련 번호	재배품목		재배면적(노지, 시설)	
	변동사항	변동사유	변동사항	변동사유
1				
2				
3				
4				
5				
6				
7				
8				
9				
10				
계				

- \* 1.재배품목 변동사유: ①소득 확보 ②신규작물 도입 ③노동력 부족 ④농업시설 설치  
⑤기타는 사유를 기재
- 2.재배면적 변동사유: ①밭 면적 증가 ②밭 면적 감소 ③농업시설 설치 ④소득작물 확대  
⑤기타는 사유를 기재

### 7. 2011년 / 2012년 비교-3

일련 번호	실 수확면적		임대면적	
	변동사항	변동사유	변동사항	변동사유
1				
2				
3				
4				
5				
6				
7				
8				
9				
10				
계				

\* 1.실수확면적 변동사유: ①병충해 ②수해 ③가뭄 ④농업용수 부족 ⑤배수불량 ⑥종자 불량 ⑦퇴비과다살포 ⑧농약과다 살포 ⑨기타는 사유를 기재  
 2.임대면적 변동사유: ①매도 ②노동력 부족 ③농산물가격 하락 ④기타는 사유를 기재

## 8. 밭작물 생산량 및 판매금액

(생산량: kg/10a, 판매금액: 천원)

작물별	2011년		2012년		증감		증감사유
	생산량	판매금액	생산량	판매금액	생산량	판매금액	

\* 증감사유: ①생산량 감소 ②생산량 증가 ③농산물가격 하락 ④농산물가격 상승  
⑤기타는 사유를 기재

## 9. 밭 직불사업의 지원 대상품목에 추가할 작물은?

①작물:

②사유:

## 10. 밭 직불금 지급 면적(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은?

①적정하다( )                      ②많다( )                      ③적다( )

④경작면적 전체 포함( )      ⑤기타( )

⑥사유( )



**11. 고추, 참깨의 비가림시설 면적은?**

- ①고추(                      m<sup>2</sup>)                      ②참깨(                      m<sup>2</sup>)

**12. 임야를 밭으로 전환 시 문제점은?**

- ①용도변경 불편(     )    ②세금과다(     )    ③규제과다(     )  
④매도 시 제약(     )    ⑤기타(                      )

**13. 앞으로 밭 작물 판매를 위한 영농의 계속 여부는?**

- ①영농을 계속한다.(     )                      ②영농을 그만 둔다.(     )

**14. 영농을 그만 둔다면 그 이유는?**

- ①소득이 없다.(     )                      ②노동력이 없다.(     )  
③밭 면적이 적다.(     )                      ④소득 작목이 없다.(     )  
⑤나이가 많다(     )                      ⑥판매가 어렵다.(     )  
⑦기타(                      )

**15. 밭 직불사업 신청 여부?**

- ①신청했다.(     )                      ②신청 안했다.(     )

**16. 밭 직불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 ①직불금액이 적다.(     )                      ②사업대상이 아니다.(     )  
③밭 면적이 적다.(     )                      ④본인 소유 밭이 없다.(     )  
⑤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                      ⑥지목이 밭이 아니다.(     )  
⑦기타(                      )